

4대그룹 내년 주요 과제
SAMSUNG — 금산분리 등 지배구조 개편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해결 — 이재용 부회장 3심 재판
HYUNDAI — 미·중국 등 부진한 해외시장 판매 회복 및 유럽·아시아 시장 판매 확대 — 미래차 투자 등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신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SK — 반도체, 에너지·화학 등 기존 사업의 혁신 방안 모색 — 바이오·배터리 등 신사업의 선포적 투자
LG — 구광모 회장 체제 본격적 첫해를 맞아 새로운 색깔 보여주기 — 구본준 부회장 계열분리 마무리 — 4년째 적자 스마트폰 사업 해결책 모색

“내년이 더 두렵다” 잠 못 드는 기업들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살얼음판 걷는 한국 경제

삼성, 지배구조 개편 ‘발등의 불’
현대차, 정의선 체제 생존전략 고심
SK,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 비상
LG, 구광모 체제 성과에 승부수

올해 국내 기업들은 살얼음판을 건넜다. 미·중 무역전쟁과 신중국 경제위기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힘겨운 싸움을 버텼었다. 힘들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기해년은 더 암울하다. 경기가 하방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새해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업 관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진다. 대그룹의 한 임원은 “사업하기 쉬웠던 적은 물론 없었지만, 내년은 진짜 두렵다”고 토로했다.

기해년을 맞이하는 재계는 위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현안별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대책 마련 및 시나리오 경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금산분리를 해결하라는 공정위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탓이다. 문제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산분리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태는 금산분리 작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삼성바이오 지분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 입장에서 금산분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경영과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마지막 파죽’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삼성이 반도체 이후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삼성바이오 논란이 확장될 경우 바이오산업은 물론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분기 어닝쇼크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현대차그룹은 본격적인 ‘정의선 체제’를 정착시키며 그야말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 중국 시장의 판매 부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함과 동시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판매 확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또다시 후진하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그룹 내에 확산하고 있다.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미래 자동차 시대에 걸맞게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수소전기차 굴기’를 외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과연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지부진했던 신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이 정부 심의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양대 축인 반도체와 에너지·화학사업이 탄탄한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다음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 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반도체 시황이 꺾이면 SK그룹도 별다른 방어책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는 내년 ‘뉴SK’를 위한 님 체인지를 가속화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에너지·화학, 반도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기술과 비즈니스 혁신에 요구되는 기술 등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은 배터리, 바이오 등의 사업에 선포적 지원을 통해 신사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 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LG그룹은 내년이 구광모 회장 체제가 본격화하는 해인 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인사에서 과감하게 외부 인재를 수혈했는데, 이에 따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구 회장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계열 분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구본준 부회장의 행보도 관심 거리다. 어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떨어져 나갈지, LG그룹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4년째 적자에 시달리는 스마트폰 사업과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전장 부문의 반등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4대 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대부분이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며 “그야말로 버티는 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하유미 기자 jscs508@김유진 기자 eugene@

2금융권 돈 빌려도 ‘신용도 폭락’ 없다

신용등급제서 점수제로 개선

내달부터 62만명 신용점수 상향

단기연체 정보 활용 3년→1년 단축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구분	내용	기대효과
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 차등 완화	CB사 평가모형 개선 -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 점수 하락폭 은행권과 동일	62만 명 신용점수 상승 - 중도금 대출자 18만 명 0.6등급 상승 - 유가증권 대출자 24만 명 1등급 상승

※출처: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 신용이 크게 하락했던 이용자 62만 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른다. 단기연체 정보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새해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등급제(1~10)에서 점수제(1~1000)로 바뀐다. 평가가 세분화됨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 산정은 물론 등급

간 절벽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점수제 전환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 중 전 금융권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 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 상승하고, 그중 12만 명은 1등급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금융회사의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3년간 한 번이라도 대출금을 늦게

갚으면 신용점수를 깎았지만, 앞으로는 그 기록을 1년치만 본다는 의미다. 149만 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이 중 75만 명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체정보 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의 단기연체 분류는 △10만 원 & 5영업일 이상→30만 원 & 30일 이상 △장기연체 분류는 50만 원 & 3개월 이상→100만 원 & 3개월 이상으로 각각 바뀐다. 단기연체는 9만 명, 장기연체는 6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국내 첫 도심 고속철 ‘GTX-A’ 착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서 축하 버튼을 누르고 있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도심 고속전철(최고속도 180km/h)로, A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서울역 20분, 킨텍스~서울역 16분, 동탄~삼성역은 2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연합뉴스

‘근로단축 후폭풍’ 공공요금 줄인상

택시 이어 내년 2월 버스요금 올려

버스기사 7300명 추가 채용키로

등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인상이 정해진다. 시내버스도 운임 현실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으로 800원, 심야 택시는 4600원으로 1000원 각각 인상하는 조정계획을 승인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1500원 인상된 650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된다.

KB국민은행 노조, 19년 만에 총파업

성과급·임금피크제 등 갈등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조합원(1만4000여 명)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9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원 투표는 과반 이상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노조는 다음 달 8일을 1차 총파업 예정일로 예고했다. 그러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고용 안정성과 복지

수준이 높아 ‘귀족노조’로 꼽히는 탓에 여론의 악화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이번 사측과 노조가 대립하는 지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과 성과급이다. 두 사안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패이밴드(직급 승진을 못 할 경우 임금 인상 제한), 점심 시간 1시간 컴퓨터 끄기, 유니폼 폐지에 따른 피복비 등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객잔산 기자 jinsan@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기업 생존 걸린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정해야”

4대 경제단체장의 신년 화두
규제 개혁·성장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소득 선순환 유도
차세대 기술 선점 투자도 강조

4대 경제단체장들이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규제 개혁과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결국 일자리 확대와 소득 분배 등 선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며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업에 대한 격려 필요하다.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변하겠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이 경제·사회적 효용 창출하도록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 경제, 침체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그동안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혁신 기술과 투자로 선도기업을 키워내야 한다.”

어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 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 살리기’에 우리 모두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상속세,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꼽았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서도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도 시대 흐름

에 맞게 고쳐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다”며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도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는 ‘복지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분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내년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90년대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국 무역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우리 무역은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혁신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수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김유진 기자 eugene@

박성택 회장 “中企 혁신·협업 통한 경쟁력 강화 절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올해 세계 경제의 침체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력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고 선제적으로 해답을 찾는다면 위기는 다시 기회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평화 분위기 속에 중소

박 회장은 중소기업 스스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성을 역설했다. 동시에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기업 사기 복돋는 대안 필요”

기업과 협동조합이 남북경협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로 버

람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노사 간 양보와 배려 속에 ‘노동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복돋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융,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중석몰축(中石沒落)’을 언급했다. 이 말은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올해 역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누구보다 훌륭하게 극복해왔다”며 “우리가 ‘중석몰축’의 자세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전력을 다한다면 오늘의 어려움 역시 내일의 성공을 위한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천연가스로,
깨끗하 Go 안전하 Go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로
내일은 더 맑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맑음
한국가스공사

20兆 적립한다더니 달랑 2兆… 공간 빈 ‘LH·토지은행’

유명무실 공공토지비축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은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공공토지 비축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토지보상비로 22조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지보상비 절감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공토지 비축 실적은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할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토지비용의 지속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공공개발이 어려워지는 걸 막고, 토지수급을 조절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문제는 도입 9년째인 현재까지도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차원 수급관리” 2009년 도입 ‘부채더미’ LH, 비축사업 등한시 9년 지났지만 목표대비 13% 그쳐 32년 후에나 적립목표 달성할 듯

‘2010~2019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 원씩 총 20조 원 규모의 토지비축 목표가 제시됐다. 하지만 2017년 말까지 실제 공공개발용 토지로 비축된 규모는 2조 원에 불과해 2017년 말 누적 목표(16조 원)의 13.0%를 채우는 데 그쳤다.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비축업무를 담당하는 LH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예산 투자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LH는 2009년 10월 출범 당시 재무상 부채가 109조2000억 원에 달했고, 이후 2012년에 138조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재무악화로 공사채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토지비축사업의 선정 없이 기존 선정 비축사업에만 주력하기로 해 저조한 실적에 머물러야 했다.

LH 재무상황 추이 (단위: 조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산	130	147.9	158.5	167.8	173.4	171.6	169.9	172.3	173.7
부채	109.2	121.5	130.6	138.1	142.3	137.9	134.2	133.3	130.9
자본	20.8	26.4	27.9	29.6	31.1	33.7	35.7	39	42.8

※ 출처: LH

토지 유형별 비축 실적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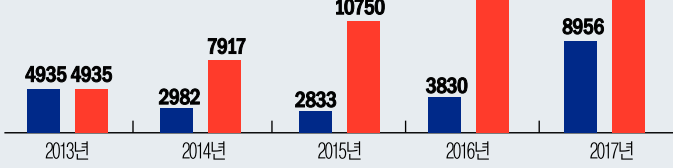
	종합계획	비축실적	종합계획 대비 실적
공공개발용 토지	16조	2조	13.00%
수급조절용 토지	8조	-	0%

※ 총 10년간의 계획기간 중 2010~2017년 8년간의 실적 토대로 작성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부

LH의 연도별 토지은행적립금 현황과 누적액 (단위: 억 원)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적립액 ■ 토지은행적립금(누적액)



이런 상황에서 재무 개선대신 방만 경영을 일삼으며 본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폐지 또는 청산 결정이 났던 LH 출자 PF(Project Financing) 회사들이 여전히 운영되면서 1조3000억 원 누적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해 국정감사에선 △2014년 681억 원 △2015년 1516억 원 △2016년 4478억 원 등 배당금을 급격히 늘려가며 재무 개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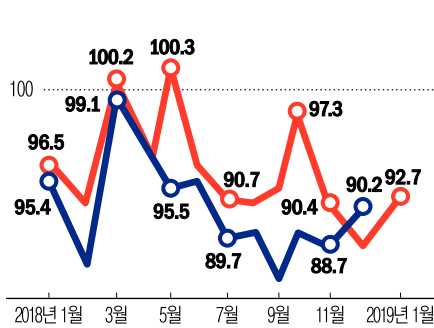
배당금이 나오는 공간인 LH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는 토지은행 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LH는 연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의

40% 이상을 LH의 자본금과 동일한 액수에 달할 때까지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적립금은 2조3536억 원이지만, LH의 납입자본금은 29조3887억 원에 달한다. 2017년 결산 후 적립액인 90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적립하더라도 32년이 지난 2050년까지는 토지 비축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 돈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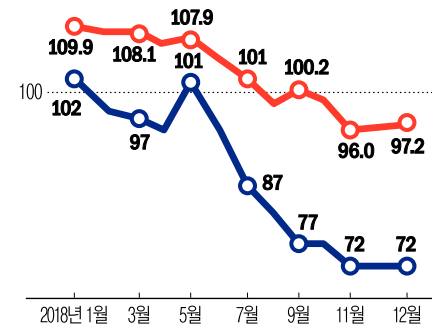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추이

○ 종합경기(전망) ● 종합경기(실적)



소비자동향지수(소비자심리지수)추이

○ CCSI지수 ● 향후경기전망CSI



세밑 한파처럼 소비·기업심리 ‘꽂꽂’

주택전망 10개월만에 최저… 수출전망도 100 밀돌며 비관적

12월 CCSI·1월 BSI 전망

내년 임금상승 기대감에 소비자심리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경기 판단이나 전망 관련 심리는 정체돼 추세 반전으로 보긴 어렵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 가격 전망은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업심리 역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양상이다.

27일 한국은행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97.2를 기록했다. CCSI란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현재와 6개월 후를 비교한 가계수입전망 CSI가 2포인트 오른 99를 기록했다. 소비지출전망과 생활형편전망 CSI도 각각 1포인트씩 오른 109와 91이었다. 반면 6개월 전과 현재를 비교한 현재생활형편 CSI는 1포인트 내린 89였다. 이는 8월(8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 CSI는 각각 전월과 같은 62와 72에 머물렀다.

서유정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생활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현재생활형편 지수가 하락한 반면, 내년도 임금 상승 기대 등으로 가계 재정상황전망 관련 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제인식 지표인 취업기회전망 CSI는 1포인트 내린 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70)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

저치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국내외 정책 금리 인상 기대 등 영향으로 2포인트 오른 132를 보였다. 임금수준전망 CSI도 최저 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1포인트 상승한 119였다. 연이은 정부 대책에 주택가격전망 CSI는 6포인트 내린 95를 기록했다. 작년 2월(9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10월에 14포인트, 11월에 13포인트 급락한 바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부정적 심리도 지속되고 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92.7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망치(88.7)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밑도는 수치다. 미·중 무역전쟁 완화 분위기에 수출전망은 92.1에 그쳤다. 내수(93.5), 투자(95.9), 자금(94.0), 재고(104.9), 고용(99.7), 채산성(98.1) 등 부문에서도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BSI란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기업들은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세도 뚜렷해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환경연 관계자는 “각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을 보더라도 성장률이 올 대비 0.1~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 체감경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변효선 기자 hsbun@

성신여대의 사연으로 직접 제작·출연한 광고입니다

성신은 나의 [오늘]이다

나는 성신의 [내일]이다

성신은 다양한 경험으로 나를 만드는 나의 [오늘]입니다

나는 성신에게 성신의 진가를 알릴 [내일]입니다

학생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교육

- 통합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저학년부터 단계적 진로관리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지원 사업 운영

학생들의 개성과 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창의 교육

-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선정 및 지식서비스공과대학 신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공학교육 진형

2019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접수 안내

2018. 12. 31(월) 11:00 ~ 2019. 1. 3(목) 18:00

홈페이지 ipsi.sungshin.ac.kr 입학상담 (02)920-2000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文대통령 지지율, 오차 벗어난 ‘데드크로스’

〈긍정 43.8%, 부정 51.6%〉

부정평가, 긍정보다 7.8%p 높아
중도층서 첫 30%대로 내려앉아
“하락 막으려면 경제 잘 관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뒤집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24일과 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3%p 내린 43.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5.5%p 오른 51.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7.8%p 많아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45%, 부정 평가가 46%를 기록하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중도층의 국정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1.3%p 하락한 36.7%를 기록했다. 중도층의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각각 긍정평가 비율이 9.4%p, 10.5%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 수색 등 ‘김태우 수사관 폭로’ 사태 논란과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등에 대한 언론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지연 한국갤럽 이사는 “부정평가의 이유 중에 ‘경제가 안 좋다’는 게 가장 많다”며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이슈가 재차 불거질 텐데 이를 잘 관리해야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철도사고·장애 발생 원인 제공자 형사처벌 코레일·철도공단 통합 검토

철도종사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중대 장애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 유지보수는 코레일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의 통합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도 주기로 했다. 불시 훈련 등 비상대응 훈련도 강화한다. 감독 체계도 상시적, 불시 점검 체계로 개선하고 인력도 증원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철도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철도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철도 사고나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망사고 때만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 부과하던 것을 중상자 발생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과 유지보수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량 정밀안전진단도 5년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내년 KTX 유지보수비를 전년 대비 22% 늘어난 1942억 원 배정했다. 고장이 잦은 KTX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한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대체교통수단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국회, ‘김용균법’ 처리… 靑 임종석·조국 31일 출석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무산
패스트트랙 처리로 결론

최대 쟁점인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으로 가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논란이 돼온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



여야가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6인 협의체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왼쪽부터)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임이자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연합뉴스

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도급 책임 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규정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쟁점인 양별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다소 완화된 조정안으로 합의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김용균법’ 처리와 두 사람의 국회 출석을 주고받은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환경부 블랙리스트’ 점입가경… 한국당 고발에 靑 정면돌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분간 정국경색

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야당의 공세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전날 폭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과 함께 330개 공공기관장·감사 등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비슷한 리스트가 작성됐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

부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시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www.childfund.or.kr

놀이를
다시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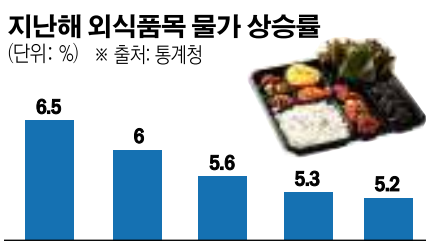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도시락·분식 물가 큰 폭 상승

통계청 ‘2017 서비스업’ 조사
도시락, 전체 물가 상승률의 4배
갈비탕·김밥·떡볶이 등 상위권
분식·김밥전문점 매출 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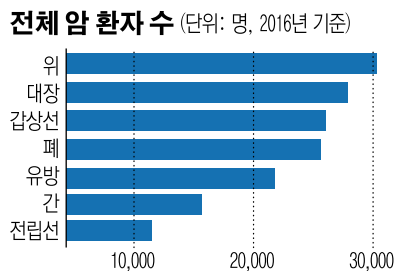
올해 외식품목 중 도시락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많이 사 먹는 김밥과 떡볶이 등 분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도시락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 외식물가 상승률(3.0%)의 2배, 전체 물가 상승률(1.5%)의 4배를 웃돌았다. 통계청은 소비 빈도가 높은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는데, 도시락 물가는 전체 외식품목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도시락에 이어 갈비탕(6.0%), 김밥(5.6%), 떡볶이(5.3%), 짬뽕(5.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스테이크(1.7%, 34위), 생선 초밥(2.0%, 32위), 피자(1.2%, 35위) 등은 전체 외식물가 상승 폭을 밑돌았다. 도시락과 분식 물가가 오른 배경으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이런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고

급화 전략 등이 꼽힌다. 특히 도시락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편의점 CU(씨유)에 따르면, 3년 전 컵라면 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도시락은 지난해 처음으로 컵라면을 앞질렀다. 한편, 도시락과 분식 수요 증가 및 고급화 전략에 힘입어 지난해 관련 업종의 매출액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중 편의점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분식·김밥 전문점 매출도 24.0% 늘었다. 이는 전체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인 7.4%와 프랜차이즈 매출액 증가율인 14.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단, 편의점과 분식·김밥 전문점의 가맹점당 매출액은 이보다 적은 5.9%, 8.7%에 그쳤다. 가맹점 수가 각각 5441개(15.9%), 1462개(14.1%) 급증한 데 따른 과당경쟁이 원인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암환자 5년 만에 증가... 전립선·유방암 급증

2016년 10만 명당 암 발생 287명... 5년 상대생존율 71%

2016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한 암환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만918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638명(5.8%) 늘었다. 신규 암환자 수는 2011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증가로 돌아섰다. 2016년 신규 암환자 중 남자는 12만68명, 여자 10만9112명이었다. 남자는 전립선암(1496명, 14.5%), 여자는 유방암(2548명, 13.1%)과 자궁체부암(349명, 14.4%) 환자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 이에 따라 남자의 암 발생 순위



에서 전립선암은 전년 5위에서 4위로, 여자의 암 발생 순위에서 유방암은 전년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암발생률도 286.8명으로 전년 대비 8.6명(3.1%) 증가했다. 암발생률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0%씩 감소해왔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6%

였다. 10년 전(2001~2015년, 54.0%) 보단 16.6%포인트(P) 상승했으나, 직전 구간(2011~2015년, 70.7%)과 비교해선 0.1%P 상승했다. 상대생존율은 일반인의 5년 생존율 대비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3.9%), 유방암(92.7%)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간암(34.3%), 폐암(27.6%), 췌장암(11.0%)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암 확진 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 수는 173만9951명으로, 국민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37만9946명)이 2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암(27만3701명), 대장암(23만6431명), 유방암(19만8006명), 전립선암(7만7635명) 순이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증시 10년 만에 최대 낙폭 2018년 증시 폐장일을 하루 앞두고 올해 코스피·코스닥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2028.01로 장을 마감해 지난해 말(2467.49)보다 17.8%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798.42에서 665.74로 16.6% 하락했다. 연합뉴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내년 전보 적용

진료비 2만~5만원으로 경감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비용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

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행정예고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5만~14만 원 수준이던 진료비 부담은 2만~5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방안,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 가산방안 등도 의결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상용직-일용직 임금차 192만원

근로자 1800만 명 첫 돌파

지난달 전국 사업체의 근로자 수가 2009년 6월 고용부문 조사 이후 처음으로 1800만 명을 넘어섰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공공일자리가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주로 증가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00만8000명으로, 작

년 같은 시점보다 32만4000명(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6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44만5000원으로 7.0%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191만9000원으로, 1년 전 상용직(326만4000원)과 임시·일용직(135만1000원) 간 격차 191만3000원보다 소폭 확대됐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뉴욕증시, 하루 늦게 찾아온 산타… 불확실성 여전

다우지수 사상 첫 1000포인트 급등… 닷케이도 2만선 회복
저가 매수세 유입 긍정적… 널뛰기 장세에 ‘투자 공포’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불케 했던 미국 뉴욕증시의 하락세가 잠시 멈췄다. 미국 백악관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설을 적극적으로 진화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하루 만에 1000포인트 이상 올랐지만 널뛰기 장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86.25포인트(4.98%) 오른 2만 2878.45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16.60포인트(4.96%) 급등한 2467.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61.44포인트(5.84%) 폭등한 6554.35에 장을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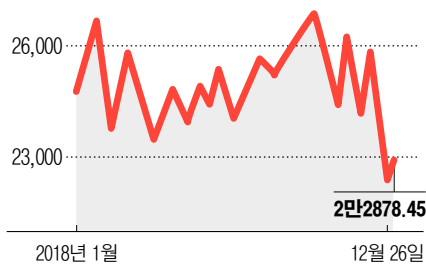
다우지수가 하루 100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승률은 2009년 3월 23일 이후 가장 높았다. S&P500과 나스닥의 상승률도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급락장을 연출하며 나스닥지수에 이어 S&P500지수까지 약세장에 진입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완전히 톨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난 셈이다.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크리스마스의 폭락 사태를 연출했던 불확실성 요소 중 일부가 해소된 것이 이날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금리 인상과 내년 금리 정책에 불만이 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에 시장이 크게 요동쳤지만 백악관이 적극적인 진화

다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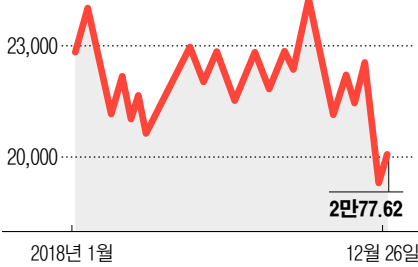


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파월 의장은 100%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해임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럴 위험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하셋 위원장은 연말 소매판매 실적이 기록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호재를 던졌다. 그는 “연말 소매판매가 지분을 뚫고 올랐다”며 내년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닛케이225지수 추이



미국 신용카드 업체 마스터카드 스펀딩 펄스는 11월 1일부터 성탄 전야까지의 소매 판매(자동차 제외)가 지난해보다 5.1%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마존 역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성탄 시즌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4일 6%대 급락했던 국제유가도 이날 8% 이상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4.69달러(8.6%) 급등한 46.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유가 상승에 엑손모빌, 셰브론 등 정유주가 상승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가세하기도 했다.

미국발 혼풍에 27일 아시아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전날 5% 넘게 하락했던 닷케이225지수는 전날 대비 756.56포인트(3.88%) 오른 2만 777.62로 장을 마치며 2만 선을 회복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딛고 급등세가 연출됐지만 연말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불안정한 가격 변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스티븐 이네스 오안다코퍼레이션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판독하기 정말 까다로운 시장”이라며 “공포가 확산돼 글로벌 자본 시장 곳곳에 계속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미국산 특가판매 금지” 印 정부 보호주의 철벽

아마존·월마트 지배력 견제 나서

인도 정부가 아마존과 월마트 등 미국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의 ‘지배력’ 견제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이 인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제휴사 제품이나 독점 계약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별 할인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소매업 거인들이 인도에서 펼쳐온 전략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마존은 독립적 판매자들과의 경쟁을 멈추고 스마트 스키커와 같은 독점 제품 판매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월마트는 올해 160억 달러(약 18조 원)를 들여 인도 온라인 소매업체 플립카트 지분의 77%를 사들였다. 새로운 제재는 독점 브랜드의 의류와 상품을 파는 월마트의 전략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자체 공급망을 통하거나 소매 업체들에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정부는 이날 사전 연결 없이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아마존과 플립카트의 인도 법인 대표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글로벌기술 연구회사인 포레스타의 사티쉬 미나 선임연구원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 취임 이후 외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장려했으나 최근 몇 개월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자 돌연 ‘보호무역주의’ 색깔을 강화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마존 칸익스프레스 등 외국 기업이 인도 소비자들의 정보를 인도 내 클라우드에 저장하도록 하는 조처도 마련했다. 인도 정부는 기술 산업 분야 기업들에 특히 새로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전자상거래 법안은 모디 총리가 내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세금과 재정 정책으로 손해를 본 영세 상인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설명했다.

인도 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소매업체는 이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트럼프, 이라크 미군부대 깜짝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26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알아사드 미 공군 기지를 깜짝 방문해 장병들과 셀카를 찍고 있는 동안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뒤에서 멧쩍은 표정을 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분쟁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끝자락에 이라크를 방문한 것은 중동권 역대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리아 철군 역풍을 잠재우는 동시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과 중시 폭락 등 국내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성격이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알아사드/로이터연합뉴스

‘90일 휴전’ 美·中 내달 첫 무역협상

中 ‘지식재산권 침해’ 주요 쟁점… 빠른 합의 나오긴 어려울 듯

통상 갈등 상황에서 90일간 ‘휴전’ 중인 미국과 중국이 새해 첫 무역 협상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 협상단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내년 1월 둘째 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제프리 케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며 데이비드 멀패스 재무부 차관도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90일간 멈추고 협상하기로 합의한 후 첫 공식 대면이다. 미국과 중국 관리들은 정상회담 후 전화로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예정된 협상 시한은 내년 3월 1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등 추가 관세를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측이 쟁점으로 삼는 협상의제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 및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 등이다.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무역 확대 등에서는 정상회담 합의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협상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꺼리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드렉 시저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USTR가 다음 달 협상단을 이끌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국의 행로

가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로 향하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시저스는 “협상 기간 90일의 상반기에 장관급 관리들의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측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미국 협상단의 지도부는 아직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무역·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대통령의 경제 보좌진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룬다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더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다운 기자 gamja@

트럼프, 파월 만나겠다 연준 금리인상 제동거나

내년초 일대일 회담 진행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내년에 일대일 회담을 모색 중이라고 CNN이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부는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직접 회담하게 되면 둘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기조적인 경제 동향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과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과 만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연준의 수장인 만큼 극히 이례적이라고 CNN은 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이 직접 연준 의장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며 “왜 안 되겠느냐. 항상 회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5년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을 만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제적 충격을 논의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벤 버냉키, 제닛 옐런 의장을 만난 적이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와 파월의 만남은 과거 대통령과 연준 의장의 회동과는 다소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월가의 분석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해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시장이 출렁이자 파월 의장 해임설까지 나돌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을 지적하면서도 파월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며 해임설을 일축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월 의장의 자리가 안전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 그렇다. 100%”라고 답하면서 파월 해임설은 일단락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Life is Good



프라엘 Pra.L



더 히스토리 오브 후 The history of 后



이브아르 YVOIR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당신의 얼굴에 머물 수 있도록
LG가 있습니다

‘귀족노조’ 통합과 분열… 세밀 엇갈린 은행권 표정

하나銀, 합병 3년 만에 ‘화학적 결합’

직급체계·임금 등 잠정 합의 오늘 제도 통합 조합원 총투표

KEB하나은행이 28일 인사·급여·복지 제도 통합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은행으로 출범한 지 3년 만에 ‘화학적 결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날로 예정됐던 제도 통합 총투표를 28일로 하루 미뤘다. 조합원들에게 제도 통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지부 관계자는 “어제 각 분회의 대표들이 한 명씩 모여 제도 통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오늘은 분회별로 총회를 열어 모든 조합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내일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EB하나은행 노사는 24일 직급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직급체계를 옛 하나은행에 맞춰 4단계로 통일한다. 하나은행의 직급체계는 행B, 행A, 책임자, 관리자 등 총 4단계로 이뤄졌다. 기존 6단계를 거쳐야 했던 옛 외환은행 직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 체계를 단순화한다.

임금은 옛 외환은행 수준에 맞춘다.

2014년 말 기준 옛 하나·외환은행 간 평균연봉은 700만 원가량 차이가 있었다.

복지제도는 두 은행의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자기개발, 건강증진 자녀교육, 주택지원, 육아휴직 등 복지를 확대한다.

KEB하나은행 노사는 5월 ‘노사 공동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9월 말까지 인사제도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은 2015년 통합됐지만 이후 인사·급여·복지제도는 별개로 적용됐다. 직원들이 출신 은행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일었다. 무엇보다 임금격차 발생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노조발(發)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고용 안정성과 복지 수준이 좋아 대표적인 ‘귀족노조’로 꼽히는 두 은행 노조의 총투표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루 차이로 진행되는 두 은행 조합원들의 결의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 산정방식 등을 둘러싼 사측과의 입장차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3년 만에 인사·급여·복지제도를 통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자는 ‘분열’, 후자는 ‘통합’을 골자로 한다. 2018년 끝자락에서 KB국민은행은 19년 만에 총파업을, 옛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으로 탄생한 KEB하나은행은 제도적 통합을 앞두고 있다.

노사 갈등에 고객 불모로 잡은 국민銀

회장 퇴진 놓고 총파업 가결 브랜드 이미지 타격 불가피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하면서 국민은행 노사는 내년도도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노사는 다름이 필연적이지만, 국민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특히나 그 골이 깊었다. 갈등이 길어진 탓에 노조의 요구는 퇴색되고, 정작 고객들만 불모로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는 올초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강하게 대립했다. 1년간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은 각론 차원에서 달랐지만 결국 큰 틀은 모두 ‘윤 회장의 퇴진’이었다. 지난해 윤 회장이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노조의 목소리는 커졌다. 검찰이 윤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노조는 최근 재수사까지 요구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양상이다.

노조는 그간 은행의 영업방식이 직원

에 과하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올 7월에는 지역영업그룹 소속 직원이 업무 부담과 실적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제도는 은행권의 과당 경쟁으로 지목돼 온 핵심성과지표(KPI)를 말한다. 하지만 사실상 노조의 제도 개선 요구는 ‘영업’을 강조하고 취임한 윤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임금단체협상마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국민은행 노조는 내년에도 ‘윤 회장의 퇴진’을 계속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기준으로 노조가 이를 주장한 지 477일째다.

하지만 노조는 오랫동안 사측과 갈등을 키워왔지만, 정작 지지는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입단협에는 노사의 대립 사이에 ‘성과급 인상’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고객 연봉을 받는 은행원의 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 이유다. 국민은행 노조도 “성과급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과급 인상을 포기한 것은 분명 아니다. 긴 시간 다툼을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이외의 논쟁은 가려질 수밖에 없던 셈이다. 또 노사 간의 다툼이 길어지면서 국민은행으로서도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불만 요소다. 만약 내년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이 많으면 최악의 경우 점포 영업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찬산 기자 jinsan@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새마을금고서도 팔아요

우리카드는 27일 새마을금고와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서 우리카드는 대표상품 '카드의정석'을 2000만 명 새마을금고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양사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전국 3200개가 넘는 폭넓은 영업점 네트워크를 보유한 판매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정원재(왼쪽) 우리카드 사장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이날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카드

생명보험 가입률 86%… 15년 만에 오름세

평균수명 증가 영향 0.7%P 올라

생명보험 가입률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15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생명보험협회가 27일 내놓은 ‘제15차 생명보험 성향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률은 86%로 집계됐다. 2015년과 비교하면 0.7%포인트 오른 수치로 15년 만의 반등이다. 이 조사는 생보협회가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우체국과 농·수협 공제 등을 제외한 민영생명보험 가입률도 83.7%로 2%포인트 올랐다.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전승환 생보협회 부장은 “평균수명 증가로 생존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고 있다”며 “고령자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늘고 보험상품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가입률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층 가입이 늘었다. 60세 이상이 67.7%로 3년 전(61.5%)보다 6.2%포인트(P) 증가했고, 50대는 5.2%P 늘어난 92.8%를 기록해

연령별 가입률 ‘1위’를 기록했다.

가구당 민영생명보험 평균 가입 건수는 4.5건으로 2015년과 비교해 0.8건 늘었고,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44만7000원으로 8만3000원 증가했다.

민영생명보험 가입 목적에 대해서는 ‘사고나 질병 시 본인의 의료비 보장 때문’이란 응답이 75.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만일에 대비한 가족의 생활보장(복수응답, 49.5%) △일시적 소득 상실 대비(1.95%) △노후생활보장(10.8%) 등이었다. 다만 팍팍한 살림에 2016년 이후 중도해약 및 효력상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7%로 2015년 조사보다 0.9%포인트 늘었다. 그 이유로는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35.6%)과 ‘기간이 너무 길어서’(32.6%)라는 응답이 많았다. 해약·효력상실 된 보험계약의 평균 유지 기간은 30.3개월이었고, 보험종류로는 사망보험(32.5%), 연금 제외 저축보험(17.5%), 질병보험(15.8%) 순이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대구은행장 선임, 9개월 표류 끝에 본궤도

3년내 퇴임·현직 임원 대상 금융권 경력 5년→3년 완화

9개월간 공석이었던 DGB대구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한다.

DGB금융지주이사회는 26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DGB대구은행 은행장을 선임하기 위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은행장의 기본 자격요건도 결의했다.

은행장 후보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퇴임한 DGB금융그룹 은행 출신 임원이나 지주 및 은행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이

다. 자격요건은 P&L 및 경영관리 임원경험, 비은행 계열사 임원경험 등이다. 금융권 임원경력에 경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날 자추위에서 은행장 자격요건 설정과 함께 DGB대구은행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은행장 선임은 앞으로 40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3월 23일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이 대구은행장 사임 의사를 밝힌 뒤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은행장 선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박명흠 부행장이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대행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후 김경룡 전 DGB금융 부사장이 은행장에 내정됐지만,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은행 안팎에서 압박을 받으며 7월 자진사퇴했다.

DGB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자추위를 통해 은행장 선임을 통한 본격 절차가 시작될 바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능력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DGB대구은행의 새로운 은행장 선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DGB 종합금융그룹의 위상을 재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DGB금융지주는 이날 그룹임원인사위원회,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도 열어 자회사 대표이사 3명과 신규임원 5명을 선임하고, DGB금융지주 및 DGB대구은행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中 가지 마오” 엔지니어 정년 없앤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공감경영 선언
“인력 유출은 기술 유출” 경각심
中, 퇴직 전후 연봉 8배 러브콜
국내업체서 1000명 이직 추정

SK하이닉스가 정년이 지나도 능력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개인과 회사의 기술 역량 강화와 더불어 '반도체 인력 유출' 해소에도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은다.

SK하이닉스는 27일 경기 이천캠퍼스에서 이석희 사장과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자지꺠) 콘서트’를 열고 ‘CEO 공감경영 선언’을 발표했다. CEO 공감경영 선언은 △엔지니어 정년 이후 근무 가능한 제도 도입 △협업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SK하이닉스는 우수 엔지니어가 정년이 지나서도 전문성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엔지니어들은 정년 이후에도 활발하게 연구개발·제조·분석 등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이 제도 도입으로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정년을 넘어서도 회사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개개인 물론 회사의 기술 역량 또한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년 정년 대상자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SK하이닉스의 이번 제도 도입이 인력 유출을 해소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최근 고민거리는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의 추격과 더불어 심각한 인력 유출 문제다. 개미구멍에 독이 무너지듯이 고급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은 반도체 회사에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사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구인력 유출은 곧 기술 유출을 의미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이미 1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표방하며, 과거 같은 언어를 쓰는 대만 반도체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자 최근 메모리 경험이 풍부한 국내 반도체 인력을 스카우트 대상으로 삼고, 연봉의 8배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특히, 50대를 넘긴 반도체 업계 엔지니어들은 이런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50대를 넘겼지만,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정년을 앞둔 고급 인력들은 경력단절과 가족 부양 등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톱3 반도체 기업에 몸담으면서 기술 개발 및 생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정년을 앞둔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영입 타깃 1호가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등은 ‘중국 반도체 인력 유출’ 해소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이직, 직업의 자유 침해 우려 등에 막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오랜 시간 공부해오며 그만큼 사회진출이 늦어진 사람들도 많다”며 “임원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정년은 다가오는 상황에서 몇 배의 연봉과 함께 사회생활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중국향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한영대 기자 yeongdai@

실리콘밸리처럼 상대평가도 폐지

**사내 경쟁보다 ‘협업’ 유도
상시 절대평가로 제도 개선**

SK하이닉스가 임직원의 승진 및 인사에 참고 지표로 삼아온 상대평가와 정기평가를 폐지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SK하이닉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EO 공감경영 선언’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료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상대평가 제도를 2020년부터 폐지한다.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반기와 연말에 평가를 받던 정기평가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별 상시 업무평가로 대체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이뤄졌다. 해외 혁신기업 문화 체험을 위해 모집된 직원들은 9월 현장을 방문하며, 직간접적으로 평가제 등 기업문화를 경험했고, 이후 이를 회사에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

로 전해졌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일찍부터 협업 문화를 강조하며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5년 무렵부터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절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회사 특성상 팀 단위 및 연구과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협업 중심의 평가제 개편이 필요했다. 상대평가는 성과주의에 매몰돼 오히려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 제기돼 왔다. 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반도체 가격과 수요와 공급 등 반도체 업황이 예전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평가보다는 상시 업무평가가 더 적절했다는 분석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한 해에도 빠르게 몇 번씩 변화하고 있고, 연초에 세운 목표가 끝까지 가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제도를 손보게 됐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車업계 “내년 추가 인건비만 7000억”

최저임금법 재논의 요청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청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추가 인건비만 연간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의 재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8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보다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차 업계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수정(안) 역시 약정 유급휴일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애초 지적됐던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도 문제로 삼았다. 협회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확정되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글로벌 자동

**“글로벌 저성장 시대 진입
부품업체 생존 장담 못해”
올 400만대 달성 미지수**

차 시장에서 국산차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1년 466만 대에 달했던 국내 자동차 생산은 이후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올해 400만대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이 저성장 기조로 변하면서

완성차 메이커끼리 경쟁이 치열해졌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개발을 위해 경쟁사가 대대적 투자에 나서는 반면 우리 완성차 업체는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차 산업의 위기를 공감하고 ‘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 가운데 하나다.

특히 최근 자금난에 쫓기고 있는 부품협력사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오른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해야 한다”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TV와 PC·태블릿 등 주변기기를 원격으로 연결하는 삼성 ‘리모트 액세스’. 사진제공 삼성전자

거실서 TV 보며 안방 PC에 접속

미리 보는 CES 2019

**삼성 ‘리모트 액세스’ 제어
LG ‘클로이 수트봇2’ 공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9’에서 IT 연결 기술과 웨어러블 로봇을 각각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CES에서 TV와 주변 기기를 원격으로 편리하게 연결하는 ‘리모트 액세스(Remote Access)’ 기능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능은 무선으로 원격 및 근접 거리에 있는 PC·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TV와 연결해 TV의 대화면에서 각 제품 내 설치된 프로그램과 앱을 제어할 수 있다.

기존의 미러링(Mirroring)은 TV가 단지 큰 화면의 역할만 했다면 리모트 액세스는 TV와 연결된 기기들을 무선 키보드와 같은 입력장치로 직접 제어할 수 있어 사용성이 더욱 편리해졌다. 사용자는 거실에 있는 TV에 별도의 HDMI 케이블 연결 없이 방에 있는 PC와 접속해 TV 화면으로 인터넷 검색·게임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클라우드 오피스(Cloud Office)’ 기능이 제공돼 TV를 통해 손쉽게 문서 작업도 할 수 있다.



허리근력을 보조하는 ‘LG 클로이 수트봇’.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VM웨어(VMware)’와의 협력을 통해 ‘데스크톱 가상화(VDI)’ 솔루션을 제공한다. 데스크톱 가상화는 물리적인 컴퓨터 대신에 사용자별 가상 컴퓨터 환경을 클라우드에 생성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장소 구분 없이 자신이 보유한 기기를 통해 할당된 클라우드 PC에 접속해 업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G전자는 산업현장이나 상업, 물류공간에서 사용자의 허리근력을 보조하는 ‘LG 클로이 수트봇(CLOi SuitBot)’을 내놓는다. 8월 선보인 하체근력 지원용 로봇에 이어 LG전자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클로이 수트봇이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허리를 굽히면 이를 감지해서 로봇이 준비 상태에 들어가고, 사용자가 허리를 펴 때 로봇이 사용자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보조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수화학, 600억대 반포동 사옥 매각...“부채비율 개선”

이수화학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옥까지 매각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수화학은 전날 사옥으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토지와 건물을 600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산총액 대비 6%에 해당한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이수화학 관계자는 “장부가 대비 매도 금액이 컸다”며 “매도에 따른 매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수화학은 이번 자산 매각으로 자산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고, 확보한 자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3분기

기준 이수화학의 부채비율은 164%에 달했다. 통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은 100%를 밑돌아야 재무 건전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수화학은 부채비율을 2016년 219%, 2017년 190%로 지속해서 낮추고 있으나 아직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수화학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의 규모는 3133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22억 원에 그쳤다.

최근 이수화학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다양한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현금 유동성 확보의 필요성을 높였을 것

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수화학은 내년 4분기 양산을 목표로 고부가 화학 첨가제 노말옥틸메르캅탄(NOM)과 노말도데실메르캅탄(NDM)의 생산 시설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 바이오 부문 신사업으로는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중국 신장성에서 스마트팜 온실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수화학은 건물 매각 이후에도 현 사옥을 임차해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따로 이전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며 “현 근무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계속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기해년은 변화의 해” 새 수장 맞는 렌탈 기업들

렌탈 선두 업체들이 새해에는 새 얼굴로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렌탈 업계 2위 싸움을 하는 청호나이스의 수장인 이석호 대표는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다. 이 대표는 3년 임기로 3번 연임하며 지난 9년간 청호나이스를 이끌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밝히며 임기 종료와 함께 회사를 떠난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 정회동 회장의 동생인 정휘철 부회장이 공동 대표이사로 결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대그룹 출신으로 2001년 9월 상무이사로 청호나이스에 발을 디딘 뒤 2010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대표 취임 이후 9년간 청호나이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청호나이스의 매출은 3846억 원을 기록했고, 누적 계정은 140만 개로 SK매직과 2~3위를 다투고 있다.

이 대표의 후임으로는 정 부회장과 함께 내부 승진, 외부 영입이 고루 거론되고 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새 대표가 내년 1월에 선임되는 것은 맞지만, 내년 초일지 그



이석호
청호나이스 대표

이해선
코웨이 대표

9년간 청호나이스 성장 이끈

이석호 대표 이달 임기 만료

웅진그룹, 코웨이 인수 반대한

이해선 대표도 교체 가능성

이후일지는 미정”이라며 “대행하고 있는 정 부회장이 될지, 외부에서 후임자를 영입할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떠나는 게 확정되면서 직원들끼리는 이해선 코웨이 대표가 오면 좋겠다는 농담도 오가고 있다”고 덧붙

였다.

렌탈업계 1위 코웨이는 내년 3월 웅진그룹 품으로 돌아가면서 이해선 대표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10월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이 코웨이 주식회사의 주식 1635만8712주(22.17%)를 1조 6849억 원에 양수한다고 밝혔다. 웅진이 밝힌 양수 예정일은 내년 3월 15일이다.

2016년 10월 선임된 이 대표는 CJ제일제당 대표, CJ오쇼핑 사장, 아모레퍼시픽 부문장 등을 거치며 마케팅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이 대표를 구원투수로 선임한 코웨이는 이후 얼음정수기 리콜 이슈 등의 악재에서 벗어났다.

이 대표는 그간 웅진그룹의 코웨이 인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왔다. 웅진그룹의 코웨이 인수 가능성도 낮게 점쳤다. 인수 이후 이 대표가 물러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 이유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인사 문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도 “인수 이후 MBK 사람이 대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하고 전 회사 사람이 대표를 계속하는 경우는 어느 분야든지 없지 않나”며 대표 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시사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내년 상반기 빚썸 주축으로 12개국 교차거래 연합 출범”

‘빚썸 인수’ 김병건 BXA대표

러시아·멕시코·조지아 등서

유동성 향상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결제플랫폼으로 도약



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어느 거래소나 거래소 홍보차원에서 에어드롭이나 페이스북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다만 빚썸이 관여하는 부분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BXA는 각국 거래소 간 유동성 공급 이외에도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BXA 코인의 적격투자자(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는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BXA 토큰 발행을 빙자한 사기 판매업자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BXA가 토큰을 직접 팔지 않는다”며 “오렌지블록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BXA 토큰 판매는 오렌지블록이 전담하며 해외 적격투자자 투자만 유치하고 있다. 홍콩 투자사 킹슬리(Kingsley Private Investment Limited)와의 계약 파기에 대해선 “킹슬리측이 기밀유지협약(NDA)을 지키지 않아 (가)계약 자체가 파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BXA를 글로벌 블록체인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

김 대표는 “빚썸을 중심으로 글로벌 12개 거래소 간 거래를 지원하고, BXA 토큰의 기속 거래 지원도 구상 중”이라며 “향후엔 BXA 토큰으로 물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용성 “자율투자 인프라 조성 벤처투자 황금시대 2막 열겠다”

이용성(사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27일 신년사에서 “2019년에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벤처투자 인프라를 조성하고 창업과 벤처투자의 황금시대 제2막을 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벤처투자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면서 “규모뿐만 아니라 투자 방식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며 질적으로 개선 중이다. 마침 벤처펀드의 해외 투자를 40% 이내로 제한했던 비율도 완화되므로 이제 벤처캐피탈은 국내외로 무대를 오가며 유망한 국내 벤처기업들이 침체한 내수시장을 벗어나 더욱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아직 0.13%에 그쳐 선진국인 미국(0.33%), 중국(0.24%)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라면서 “벤처캐피탈 산업의 진정한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벤처투자촉진법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의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되고 있다는 소식을 마주했을 때는 벤처캐피탈 업계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노력이 다소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제약에도 2018년은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금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유니콘 기업을 여럿 키워낸 의미 있는 한 해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2017년 두 곳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6개로 늘었다. 특히 모바일 송금 앱 ‘토스’의 개발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 5년 만에 기업가치 1조 원을 웃돈 데 이어 배달 문화의 혁신

신이라고 불리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기업가치 3조 원까지 돌파했다. 토스와 배달의민족은 창업 초창기에 국내 대표적 벤처캐피탈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차례 조달하며 혁신과 성장에 추진력을 더한 대표적 스타트업으로 손꼽힌다.

이 회장은 “2019년에는 시장 친화적 벤처 중심 정책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경제가 역동성과 혁신성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벤처투자촉진법이 2019년 상반기 중 시행되면 앞으로 민간 주도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람 기자 hura@

통신재난 발생시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다른 통신사 무선망 이용 가능

화재 등으로 인해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타사 통신망을 통해 전화나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서 통신 대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한다. 다만 정부는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로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통신사들은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동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A·B·C급의 점검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한샘, 초등생 가구 신제품 출시

한샘이 신학기를 앞두고 초등생 가구 신제품 ‘조이S’를 선보이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샘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자녀 방을 통일성 있게 꾸밀 수 있도록 연관성 높은 제품을 함께 구매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조이 책상 세트와 조이 침대 세트(프레임 + 매트리스)를 함께 구매하면 조이 행거나 이동 서랍장 중 하나를 증정한다.

신제품 조이S 책상 세트와 조이S 수납장류(책장, 옷장, 서랍장 중 택1)를 함께 사면 수납류를 20% 할인하고, 자녀 방 침대와 유로 602 포시즌매트리스를 함께 살 때도 최대 2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책상 세트와 의자를 동시에 구매할 경우 구글홈 미니를, 조이S 책상 세트를 구매하면 인출형 LED 조명을 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시몬스침대, 감성과학대상 4회 연속 수상

감성제품 부문 대상

시몬스가 ‘2018 제5회 한국감성과학대상’에서 4년 연속 감성제품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감성과학대상은 한국감성과학회가 위촉한 대학과 연구소의 감성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평가를 거쳐 소비자의 감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제품, 서비스, 콘텐츠, 리더십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 시몬스침대는 작년에 이어 ‘뷰티레스트 컬렉션’의 매트리스 전 제품이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시몬스는 2015년 뷰티레스트 ‘폴로럴’, 2016년 뷰티레스트 ‘자스민’, 2017년과 2018년, 2회 연속 뷰티레스트 컬렉션 전체가 수상작으로 선정돼 4회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컬렉션은 ‘디자인을 입은 매트리스(Designed Mattress)’라는 콘셉트로 소비자들의 감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레트로 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체크 무늬와 기하학적인 도트, 플라워 패턴 등을 적용해 특히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시몬스 침대의 뷰티레스트 컬렉션은 포스코사의 경강선만을 이용한 고유의 포켓



스프링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완벽히 구현한다. 또한 탄력, 지지력, 형태가 다른 포켓스프링을 사용자마다 다른 신체의 곡선, 무게중심 등을 고려해 조합하고 배열하는 독보적 ‘조닝(Zoning)’ 기술과 50여종의 내장재를 다양하게 조합, 배치하는 ‘레이어링(Layering)’ 기술은 섬세한 지지력과 시몬스 고유의 안락함을 형성한다.

시몬스 관계자는 “디자인뿐 아니라, 사용감에서도 사용자들이 완벽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감성과학’을 도입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자랑하는 수면연구 R&D센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매트리스의 경도 등에 정량적인 수치를 도입해 더욱 세밀하게 수면 환경을 연구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posco

기업시민 POSCO입니다

비즈니스 가치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함께
신뢰와 창의를의 문화를 함께
기업시민 포스코가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With POSCO

5년간 5,500명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포스코인재창조원 홈페이지(www.poscohrd.com)를 참조해주세요

〈가정 간편식〉

“VIP가 먼저 찾네”...HMR 눈 뜬 백화점

갤러리아 '자체 간편식' 출시
프리미엄 HMR 선두 현대백
4개월 만에 매출 목표 30% 초과

백화점들이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식품업계와 대형마트, 편의점이 주름잡던 시장에 고급화 전략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다.

27일 갤러리아백화점은 자체 운영 중인 자체 브랜드(PB) 식품 '고메이494'를 확장해 HMR 상품을 28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1인 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인구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첫 출시하는 HMR 상품은 △강진맥우 꼬리곰탕 △강진맥우 사골곰탕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등 5종이다. 갤러리아는 백화점 채널 특성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간편식 브랜드로 '고메이494'를 키운다는 전략이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메이494' PB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주스, 건강칩, 반찬류, 밀키트 등으로 상품을



갤러리아백화점 '고메이494'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간편 식품은 식품업체와 대형마트, 편의점이 주목하는 시장이었다. 롯데푸드는 2010년 '쉐푸드'를 통해 HMR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육가공 브랜드 '라퀴진'을 내놔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비비고'를 출시하고, 최근 미국 냉동식품 회사 슈완스를 인수해 글로벌 사업을 키우고 있다. 편의점 중에서는 GS25는 자체 브랜드 '유어스', CU(씨유)는 '헤이루'를 통해 가정간편식을 선보이고 있다. 대형마



현대백화점 '원테이블'

트로는 이마트가 2013년 '피코크'를 론칭해 간편식 시장에 처음 발을 디뎠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각각 PB브랜드인 '요리하다'와 '올어아웃푸드'를 통해 가세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체인 '익스프레스' 대부분의 점포를 '신선·간편식 전문 매장'으로 본격 재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백화점 업계 역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농식품유통교육원에 따르면 HMR 시장 규모는 2010년 9000억 원 규모에서 작년 3조 원

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올해 시장 규모는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8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하는 셈이다. 2023년 예상 시장 규모는 10조 원이다.

처음 시장에 진출한 백화점은 현대다.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은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업계 최초로 HMR 프리미엄 간편식을 표방한 '원테이블'을 론칭했다. 성과도 좋다. 출시 4개월 만에 20만 개를 판매해 당초 목표를 30% 이상 초과 달성했다. 매출의 절반이 VIP 고객에게서 나오는 등 고급화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사업을 확장해 4월에는 밀키트(Meal Kit) '셰프박스', 8월에는 국내 최초 연화식 HMR '그리팅 소프트'를 잇따라 출시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체 PB 없이 이마트의 피코크와 신세계푸드의 올반을 유통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도 계열사인 롯데푸드에서 HMR 제품을 전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정 간편식 시장은 식품·유통업계에서 최근 가장 주목하는 사업”이라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새로 나왔어요



김밥·도시락과 먹기 좋은
국 대용 농심 '미니컵면'

농심이 김밥, 도시락 등 즉석식품과 곁들여 먹기 좋은 '미니컵면'을 출시했다. 농심 미니컵면은 용량을 일반 컵라면의 절반 수준(43~44g)으로 줄이고 얇은 면을 택해 조리시간을 2분으로 단축시킨 것이 특징이다. 양이 적고 조리 간편해 국 대용으로 활용도가 높으며 간식으로도 제격이다.

농심 미니컵면은 최근 즉석식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출시된 제품이다. 농심 관계자는 “컵라면과 김밥, 도시락 등을 함께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부상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즉석식품과 함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용량 컵라면 출시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농심 미니컵면은 '가쓰오우동 맛'과 '시원한 해장국맛' 2종이다. 가쓰오우동맛은 감칠맛 나는 우동 국물에 별미튀김과 건미역 건더기를 더했다. 시원한 해장국 맛은 건과와 고추, 계란지단을 넣어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해장국 국물을 구현했다.



해물만두 1위 수성 도전
동원 개성 왕주꾸미만두

동원F&B가 '개성 왕주꾸미만두'를 출시, 해물 만두 열풍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개성'은 동원F&B가 2008년 출시한 프리미엄 만두 브랜드로, 당시 저가형 만두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성을 내다보고 첫 제품으로 '개성 왕만두'를 내놔다.

2016년에는 업계 처음으로만두소에 새우 통살을 넣은 '개성 왕새우만두'를 출시해 국내에 해물만두 시장을 새로 개척했다. 해물만두 시장은 올해 4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동원F&B는 점유율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원F&B는 이번에 나온 개성 왕주꾸미만두를 통해 국내 해물만두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성 왕주꾸미만두는 주꾸미 통살을 큼직하게 썰어넣고 특제 양념으로 매콤한 맛이 어우러진 왕교자 제품이다. 오징어 통살도 함께 넣어 해산물의 풍미를 즐길 수 있으며 부추, 당근, 양파, 양배추 등 신선한 야채를 곁들여 넣어 씹는 맛을 더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만두피는 반죽 기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반죽을 치대는 진공 반죽 공법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만두피의 공기 입자가 제거돼 더욱 찰지며 수분이 고루 스며들어 식감이 좋아진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설화수 제친 '후' 국내 화장품 첫 연매출 2兆 돌파



LG생활건강 후 '비첩 자생 에센스'(위)와 설화수 자음2종 기초세트.

매출 4조~5조 랑콤·시세이도·에스티로더 비교할 만
LG생진 “중국 시장·국내 면세점·백화점 매출 한몫”

LG생활건강의 '후'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제치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연 매출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LG생활건강은 27일 매출 마감 기준으로 올해 누적 매출 2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단일 브랜드의 연 매출 1조 원 시대는 설화수가 먼저 열었으나 후가 그 기록을 넘어 연 매출 2조 원의 신기록을 세웠다. 더욱이 후는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2조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1997년 출시된 설화수는 2015년 연 매출 1조 원을 넘어섰고, 2003년 탄생한 후 발주자였던 후는 이듬해인 2016년 연 매출 1조 원을 기록했다. 이후 설화수를 바짝 쫓던 후는 2017년 연 매출 1조4200억

원을 기록한 뒤 올해 설화수를 제치고 먼저 매출 2조 원 고지에 올랐다.

후의 매출을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으로, 이는 글로벌 톱3 화장품인 랑콤(5.3조 원), 시세이도(4.7조 원), 에스티로더(4.4조 원) 등의 브랜드와 비교할 만한 규모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의 한 관계자는 “후의 연 매출 2조 원을 이끈 것은 중국 현지에서의 매출, 국내 면세점 및 백화점 매출이 한몫했다”며 “중국에 진출한 후 매장은 현재 203개에 달하고, 중국 매출에서 후와 같은 럭셔리 화장품 매출은 90%를 차지한다. 중국 현지 매출이 높아질수록 후 매출도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후는 현재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16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설화수 역시 중국,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등 11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신규 진입 국가는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향후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브랜드의 베스트 제품 가격 차이도 이번 연 매출 성과 달성에 희비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비첩 자생 에센스 50ml'는 16만5000원대, 천기단 화현 3종 세트는 30만 원대인 데 비해 설화수의 윤조에센스 60ml는 9만 원대, 자음 2종 세트는 12만 원대다. 한편 후와 설화수의 성적표는 앞서 올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36%나 영업이익 감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반면 LG생활건강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백미선 기자 only@

케이크 스탠드·나이프...홈파티 '폼생폼사'에 지갑 연다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호황
“1년에 한 번 모여도 제대로”
고객 한 명당 지출도 늘어

홈파티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프리미엄 테이블웨어도 호황을 맞고 있다. 레스토랑이나 주점 등을 뒤로하고 집에서 직접 파티 분위기를 내려는 소비자들이 늘자 고급 식기나 커트러리 등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1년에 한 번 가까운 지인들과 신경 써서 즐기는 자리인 만큼 프리미엄 제품에 과감히 투자한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G9(지구)에 따르면 최근 한 달(11월 26일~12월 25일)간 양식기세트 판매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가까이(283%) 급증했다. 포크와 나이프, 티스푼



코스타노바 올리바 케이크스탠드(왼쪽)와 웨지우드 케이크 나이프 서버 세트.



등의 판매도 50% 늘었다. 서양식 메뉴를 주로 준비하는 만큼 집기 또한 그에 맞춰 마련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식탁매트(390%)와 브레드박스(24%), 커피잔 및 찻잔(16%) 등 파티 테이블에 걸맞은 각종 디자인 상품도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투자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양식기 세트의 구매 객단가는 전년보다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명의 고객이 관련 상품 구매에 10만 원을 지출했다면 올해는 12만6000원가량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선호도가 높은 대표 상품으로는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식탁을 화사하게 해주는 '에밀양리 세라돈 디너 4인세트 23피스

(22만7050원)'가 있다.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한 'WMF 양식기 커트러리 세트 30종(14만 원)'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식을 겸한 이색 제품도 인기다. 일상 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파티용으로 제격인 '웨지우드 케이크 나이프 서버 세트(6만8000원)'나 '코스타노바 올리바 케이크스탠드(8만8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바보사랑 아틱 브레드박스 2단(4만7850원)'도 맛은 물론 보는 즐거움을 더해 관심을 끈다.

임경진 G9 마트리빙팀장은 “홈파티는 단순한 술자리나 회식보다 심리적 만족감이 높은 편이어서 최근 연말 모임으로 선호도가 높다”며 “새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면서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데 기여 비용을 투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세원개발·중원… ‘일감’ 논란 계열사 정리 속도

중원그룹 일감돌보기

한일시멘트그룹

오너 3세가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내부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일시멘트그룹이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을 인적 분할해 매각하는 한편, 오너가의 지분 정리에도 나섰다.

1960년대 설립돼 3세 경영이 본격화된 한일시멘트그룹은 올해 한일시멘트가 인적분할로 한일홀딩스로 바뀌고, 자회사 한일시멘트를 신설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을 추진했다. 홀딩스는 자회사 관리·투자를, 신설 법인은 시멘트·레미콘·레미탈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

현재 한일시멘트를 이끌고 있는 허기호 회장은 허정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인 고(故) 허재경 선대회장의 장손이다. 허정섭 명예회장 동생인 허

내부거래 비중 70% ‘세원개발’
경비·미화용역업 분할 후 정리

‘중원’ 지배력 강화 활용 지적에
허기호 회장 보유지분 전량 매각

동섭 명예회장의 일가도 일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허동섭 명예회장의 두 딸인 서연·서희 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시멘트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허동섭 명예회장의 장녀인 서연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원개발은 70%대에 가까운 매출을 그룹 계열사들이 책임져 왔다. 세원개발은 최근 자료인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허서연 씨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분 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자료는 2005년 감사보고서로 서연 씨가 50%, 동생 허서희 씨가

세원개발 내부거래 비중
(단위: 억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53	55	59	60
내부거래	52	49	46	46
영업이익	-4	-4	-7	-6
비율(%)	98.11	89.09	77.96	76.66

47.5%, 허동섭 명예회장의 아내인 김전에 씨가 2.5%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오너 일가가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세원개발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4년 98.11%(53억 원 중 52억 원) △2015년 89.09%(55억 원 중 49억 원) △2016년 77.96%(59억 원 중 46억 원) △2017년 76.66%(60억 원 중 46억 원) 등 매년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세원개발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과 경비와 미화 용역업 등을 영위한 회사다. 주

중원 내부거래 비중
(단위: 억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418	475	585	546
내부거래	97	87	115	116
영업이익	35	36	42	52
비율(%)	23.20	18.31	19.65	21.20

로 한일시멘트와 서울랜드의 경비·정소 일감을 받는 것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께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는 세원개발과, 경비·미화용역업을 하는 송현산업으로 사업을 분할했고, 송현산업은 매각했다. 이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의 핵심이었던 ‘경비 및 미화용역업’을 정리해 내부거래 문제를 없앴다.

또 허기호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중원도 매년 100억 원여치의 일감을 한일시멘트로부터 받아왔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4년 23.20%(418억 원 중 97억 원) △

2015년 18.31%(475억 원 중 87억 원) △2016년 19.65%(585억 원 중 115억 원) △2017년 21.20%(546억 원 중 116억 원) 수준이다.

휴즈와 전기차단기, 전기시설재 등의 제조와 판매 및 전기공 사업을 영위한 중원은 2017년 감사보고서 기준 허기호 회장(38.09%), 한일네트웍스(24.42%), 허정섭 명예회장의 아들인 허기준 씨(22.21%)와 허기수(15.28%) 씨가 주주로 있다. 지난해 말 중원이 2대주주였던 한일네트웍스의 보유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오너일가의 회사가 됐다.

그러나 올해 12월 허기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중원 주식 9만5000주 모두 매각하면서 계열회사에서 빠졌다. 중원이 허 회장 등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일시멘트그룹 관계자는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지투하이소닉, 前 경영진 리스크에 BW 조기상환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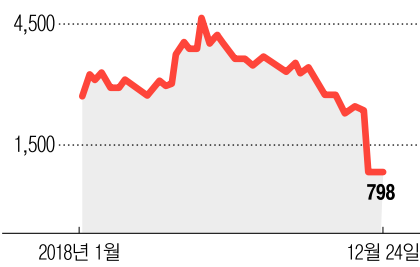
유증 무산에 상폐 가능성까지
상환자금조달 어려움 겪을 듯

휴대폰 카메라 부품업체 지투하이소닉이 전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로 신주인 수권부사채(BW) 원금의 조기 상환 의무까지 짊어지게 됐다. 앞서 진행한 3차배정 유상증자가 무산된 데다 상장폐지 가능성도 남아 있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지투하이소닉은 24일 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BW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공시했다. 상잔잔액은 약 28억 원이다.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사채관리 계약서에 따라 광병현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은 즉시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가 된 BW는 지투하이소닉이 2016년 총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사채로 만기는 2021년 5월 19일이었다. 조달한 자금은 베트남 공장을 신설하고 만기가 도달

지투하이소닉 주가 추이
(단위: 원)



한 은행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됐다. 하지만 이후 주가 하락과 함께 낮아진 기대감에 사채권자의 풋옵션(매도) 행사가 잇따랐다.

일반적으로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들은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한다. 전환사채(CB)를 발행하거나 3차배정 유상증자 등의 대안을 통해 사채를 상환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다만 상장사와 채권자가 맺은 채권 계약에 붙는 조건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여지도 있다.

코스닥 퇴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지투하이소닉은 꼭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시된 12일 이후로 주권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내년 1월 7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심사 대상으로 확정 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속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심사 대상으로 불포함할 경우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

이와 관련, 지투하이소닉 측은 채권 상환 방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묵묵담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는 회사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IR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2001년 문을 연 지투하이소닉은 휴대폰 카메라용 AF 액추에이터(자동초점 조절 장치)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종속기업으로 임가공 업체인 HYSONIC PHILIPPINES., INC.와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웅원메디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타깃데이트펀드〉

TDF ‘참담한 한 해’

설정액 10억 이상 38개 상품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

은퇴 시점에 맞춰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올해 글로벌 증시 하락 탓에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TDF가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운용하는 상품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설정액 10억 원 이상 국내 38개 TDF의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삼성한국형TDF 2020증권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_CF가 연초 이후 수익률 -4.51%, 6개월 수익률 -3.94%로 가장 선방했다. 일부 TDF는 수익률이 -13% 아래로 떨어졌다.

목표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한 TDF 중에서는 신한BNPP마음편한TDF가 연초 이후 수익률 -4.60%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다. 이어 미래에셋전략배분TDF -5.52%, 삼성한국형TDF -5.67%, 미래에셋자산배분TDF -7.18%, 한국투자TDF알아서2025 -8.85% 순이다.

목표 시점에 따라라도 수익률 차이도 컸다.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이 다른 탓이다. 미래에셋전략배분TDF 2040년혼합자산투자신탁종류C-I의 자산 내 주식비중은 60.61%,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투자신탁종류C-P는 38.68%이다.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미래에셋TDF2040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01%인 반면 미래에셋TDF2025는 -6.08%로 4%p가량 차이가 났다. TDF는 목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들 TDF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주식혼합형 펀드(-11.10%)나 액티브 주식 펀드(-16.85%)보다 높았다.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연금마케팅 부문장은 “TDF는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운용하는 구조”라면서 “다른 펀드보다 길게 봐야 하며 1·2년을 두고 보는 것은 실제 상품 설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기업 PR〉

해외증시 변동성에 글로벌ETF 관심 쏙

삼성證 “귀금속·배당 또는 일드형·자산배분 업종 주목”

해외주식거래 금액이 올 들어 300억 달러를 넘겼다. 2014년 81억 달러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이 4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도현 삼성증권 수석은 “다양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높아진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ETF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내년 글로벌ETF 투자전략으로 ‘단단한 방패와 짧은 칼’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귀금속, 배당 또는 일드형, 자산배분 업종에 주목할 것을 추천했다. 미국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IT에 투자할

수 있는 FDN, TDIV를 비롯해 경기방어 업종들에 투자할 수 있는 IWD, USMV 투자를 조언했다.

아시아·이머징 시장에 투자해 분산할 수 있는 AIA, DEM도 주목했다. 아시아의 대표 블루칩 기업들 또는 이머징 시장에서 배당수익률이 상위 30%에 포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중신증권(중국)과 대만KGI증권, RBC증권(미국 북미지역), SMBC닛코증권(일본), 호찌민증권, 소시에테제네럴증권(프랑스)과 제휴를 맺고 차별화된 해외주식 관련 투자 정보를 신속하게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조성자 재개

코스닥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시행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40개에 대한 시장 조성을 시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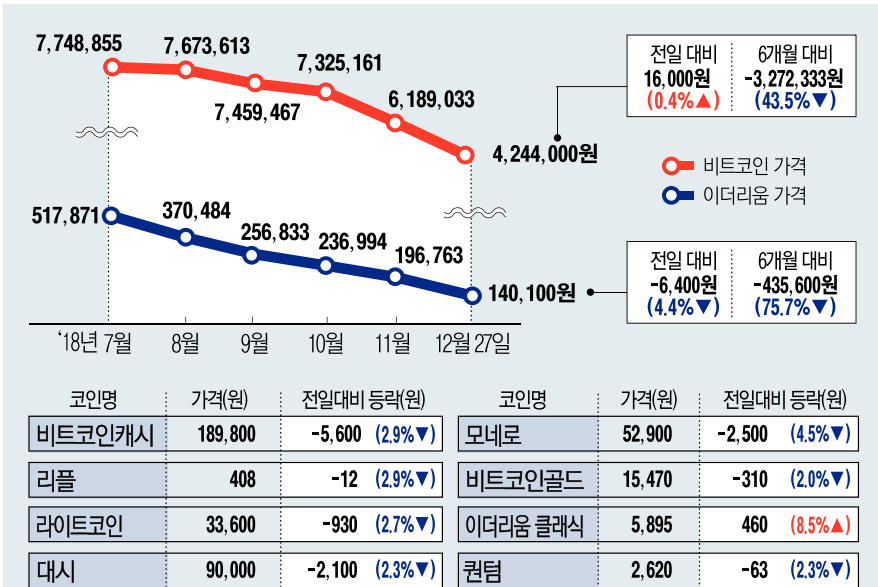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제도다. 계약에서 정한 가격범위 이내로 양방향 호가를 상시 유지할 수 있다. 종목 선정은 유동성등급 평가 결과 유동성이 부진한 종목 중 각 회원사가 지정한 종목으로 결정한다.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서 즉시 거래가 가능해졌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8년 12월 27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시작된다

송파구청, 오늘 준공승인 낼 듯
31일부터 열쇠 인수 입주 가능
9510가구 대단지…혼잡 예상

9510가구가 들어서는 송파 헬리오시티 <사진>의 정식 준공인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송파구청에 따르면 28일 정식 준공인가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조합 측이 준공인가를 위한 사전협의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하고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주에 송파구청이 조합 측에 준공인가 승인을 통보하면 계획대로 이달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들은 열쇠를 받기 전에 잔금, 옵션 비용 등을 정산해야 한다. 입주 절차는 잔금 납부→입주증 발급→관리비 예치금 납부→열쇠 인수→입주 순으로 예정돼 있다.

입주증 발급과 열쇠 인수는 시공사별로 마련한 입주지원센터에서 제공한다. 헬리



오시티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공사 지분율은 삼성물산이 40%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각각 30% 수준이다.

시공사별 입주지원센터는 삼성물산은 401동, 현대건설은 105동, HDC현대산업개발은 517동 인근에 각각 마련됐다.

입주안내서에 기재된 입주지정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다. 열쇠 인수는 이달 31일부터 가능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준공인가 승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지 안팎으로 일부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준공 이후에 공사하면 되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사가 본격화되면 단지 내 혼잡이 우려된다. 입주 가구수가 많은 데다 사다리차도 사용할 수 없어 전 가구 입주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입주안내서에는 “이사 시 혼잡에 따른 시간 지연 등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가능일, 이사 시간 등을 관리사무소와 필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기재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사일을 예약해야 하고, 만약 예약이 안 된다고 하면 이사 날짜를 바꿔야 한다”며 “사다리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헬리오시티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인근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준 부동산114의 주간동향을 보면 송파구는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으로 인근 잠실 일대 대단지의 전세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잠실동 잠실엘스가 500만~2500만 원, 신천동 잠실파크리 오가 2500만~3500만 원 하락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 3개월 시한은 벌었지만…

건설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 논의 주목

“제도 도입 전 계약엔 예외를”

정부가 올해까지인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는 줄줄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 준수가 생명인 사업 특성상 기존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에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거나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자의 제도기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이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서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기간을 3개월 늘려 내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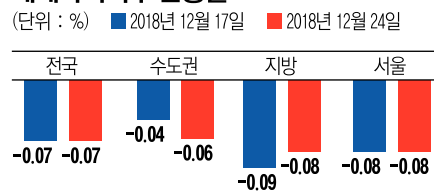
다. 당초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사업현장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이 예정됐지만 계속 지연되면서 처벌 유예기간도 함께 늘어났다고 됐다.

이에 건설업계는 ‘발등의 불’은 일단 피했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 상황에 맞춰 공사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을 지키며 공기를 준수하라고 하니, 이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처벌 유예로 일단 범법은 피하게 됐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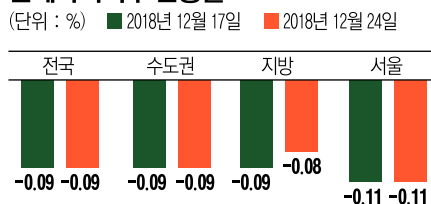
실제 건설현장은 주 52시간 미준수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09개 건설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48개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이미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되던 곳은 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주 52시간 도입 전 계약된 사업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뒀아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서울 아파트값 0.08%↓…7주째 내리막

서울 아파트값이 7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12월 4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7%,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0.04%→-0.06%)이 하락폭 확대하고, 서울(-0.08%)은 낙폭을 유지했다.

7주째 하락세인 서울은 공급 계획, 9·13 대책, 금리 인상 등 하방압력으로 모든 구에서 하락 또는 보합을 기록했다.

강북 14개구(-0.05%)는 용산·노원구는 급등했던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고, 서대문·중·종로·은평구는 급매물이 출현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다.

강남 11개구(-0.12%)는 강남·서초구가 구축 위주로, 송파·강동구가 구축·신축

양쪽에서 하락했다. 강남 4구 이외 지역에선 매수 대기자들의 추가 하락 전망으로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양천구는 신시가지 구축 위주로, 구로구는 급등했던 구로동 위주로, 강서구는 투자수요 많았던 등촌동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9%→-0.08%)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대전은 서구가 투자수요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급등 피로감으로 상승폭이 줄었고, 유성구는 노은지구 이사 수요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에서 0.09% 하락해 지난주 낙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9%, 서울은 0.11%, 지방은 0.08%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44%), 대전(0.14%), 전남(0.03%) 등은 상승, 충북(-0.38%), 울산(-0.24%), 경남(-0.19%) 등은 하락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지하 1층·지상 14층 총 98가구
서울 강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市, 도시관리계획 조건부 가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14층 98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진 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916.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광진구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99세까지 건강하게-

엄마 아빠, 나인나인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국내 최다 성분 한국인 맞춤 종합비타민
*2018년 8월 기준

나인나인®

(효능·효과) ●육체피로 ●눈 건조감 완화 ●병중/병후의 비타민 보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능·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대법, 통상임금 소송서 ‘신의칙 적용 기준’ 구체화 “당기순익, 추가 임금보다 많다면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없다”

“미지급 임금, 소급해서 줘야”
‘다스 소송’ 근로자 손 들어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한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근로자 30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상임금 소급 적용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쉬전장 근로자 57명이 회사로 낸 통상임금 소송은 파기환송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 ‘신의칙(信義則)’에 대한 해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금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신의칙에서 논란이 된 ‘경영위기 판단 기준’은 보다 명확해졌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원칙이다.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소급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신의칙’에 따라야 한다”는 다소 모순된 조건을 달았다. 근로자의 요구가 회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에 해당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법원마다 ‘경영 위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뉘면서 신의칙 위반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경영 상태를 판단할 때 당기순이익만 고려할지, 이익잉여금(사내유보

금)도 함께 고려할지 등이 나뉜 것이다.

보쉬전장 사건의 경우 1·2심 모두 “짜수 달에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봤지만, 경영상 어려움에 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당기순이익만 기준으로 삼아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 반면 2심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을 감안해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스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당기순이익만 기준으로 삼아 누적 당기순이익이 추가 임금 비용을 크게 웃돈다며 노조 측의 추가 임금 청구를 인정했다.

다스 소송 상고심에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경영 위기’에 대한 판단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일관됐다. 한편, 대법원은 보쉬전장 원심판결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이 포함돼 있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신의칙’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한솔 기자 charmy@



“반가운 한파” 27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 송어축제장을 찾은 행락객들이 올해 처음 선보인 텐트 낚시터에서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 동아쏘시오 회장 2심도 징역형

병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형령, 조세포탈,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 원, 하모 전 동아 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회장에 대해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 원 중 4억1600만 원만 인정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공정위 재취업’ 정재찬·김학현 징역4년 구형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기업에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들에게 나란히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 김동수(63) 전 위원장과 노대래(62) 전 위원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

다.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7) 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그 외 공정위 관계자들에게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각각 1년 안팎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관행이 존재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관행이라고 규정돼 온 사건에 대한 심판”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자리 잡고 있던 잘못된 관행, 편법행위에 준엄한 경고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직 간부들은 최후변론에서 기업 재취업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취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보고받은 내용은 간략한 형태의 추진보고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도 “수동적으로 보고받은 입장이었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취업이 어떻게 결정되고 실무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온라인 웹툰 ‘성차별’ 심각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되는 인기 웹툰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하나로 서울YWCA와 함께 웹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10월 17~23일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되는 웹툰 작품 중 조회 수가 높은 36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웹툰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 연령대는 청(소)년층이 전체 272명 중 203명(74.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용 분석 결과 성차별적 내용이 45건으로 성평등적 내용(9건)보다 약 5배 가량 많았다.

양평원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성차별 사례 일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에 심의개선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thgm17586@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2018. 01. VOL. 49

프랑스대 명예박사의 고집, 인과응과를 전지하는 아내의 비밀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오랜전 실려낸 엄마의 집안 지안채 일러진 수미에 대한

세계를 호령한 (매주 9시 30분) 강현숙

가을이 50명의 사랑을 받았는데

101세에 일러진 일러진 수미에 대한

미용사 박민 수미에 대한

남들처럼 인생계, 누구보다 노력하여 온 인생과 기쁨을 찾아낸 고수가 된다

Guru

COVERSTORY 광내고 기름찰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 PART1. 고수의 품격 - 멈추지 않는 한, 누구나 인생 고수가 된다
- PART2. 대한민국 고수를 모으 - 구루(guru)가 되기 위해 똬전 연설했을 조합
- PART3. 도전의 고수 - 최고령 보디빌더 서명갑 씨, 인스타그램 스타 김석재 씨
- PART4. 생활의 고수 - 도시 속 미용 고수 정성미용실 신상순 씨
- PART5. 재능의 고수 - 외국에서 더 밝히는 섬유공예작가 이소라 씨
- PART6. 숨은 고수를 다 모여 - '숨고'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 PART7.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 동년기자들의 답

월매이징 머릿속 폭탄 뇌졸중, 의심되면 무조건 응급실 찾아야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중장년의 대표적 질환질환 중 하나. 특히 겨울철만 되면 더욱 속을 썩인다.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데다, 후유증에 고생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면 불안감은 배가된다. 게다가 '골든타임, 즉 발병 후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남재라는 사실은 더욱 시나위를 옥죄는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전문의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서건덕(徐健德, 40) 고수를 통해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다.

박완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겨울 캄바람이 많치게 물어치는 산골이다. 마을의 풍경은 낯익게 한철한 맛을 풍긴다. 산비탈 따라 층층이 들어선 주택들. 잠잠하다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할 게다. 가구 수는 50여 호, 90%가 귀촌이나 귀농을 한 가구다. 하, 귀촌 귀농 바람은 바야흐로 거센 조류를 달아간다. 마을 이장은 김종옥 씨. 그는 이 마을에 입성한 1호 귀농민이다. 그의 소개나 추천에 이끌려 이곳으로 정착한 귀촌인들도 많다고.

말리지 매 난 일박에 몰라

겨울 캄바람이 많치게 물어치는 산골이다. 마을의 풍경은 낯익게 한철한 맛을 풍긴다. 산비탈 따라 층층이 들어선 주택들. 잠잠하다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할 게다. 가구 수는 50여 호, 90%가 귀촌이나 귀농을 한 가구다. 하, 귀촌 귀농 바람은 바야흐로 거센 조류를 달아간다. 마을 이장은 김종옥 씨. 그는 이 마을에 입성한 1호 귀농민이다. 그의 소개나 추천에 이끌려 이곳으로 정착한 귀촌인들도 많다고.

신라산가 만난 사람



잘 다스린 상처는 아픔을 건다는 말이 된다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



요란하지 실려낸 엄마의 음식(자란치 해)까지 일러고따 한식 전도시 채우 감수해



미니멀이 러서리를 만들고 절제가 절여지게 한다

주한 외교관들에게 사랑받는 픽터 김



타박타박 도보여행 피란수도 부산의 추억을 더듬는 길 '초량야구길'

수도권 기온이 영하로 폭 떨어진 날, 부산역에 도착했다. 평소대로라면 부산역 옆 돼지국밥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 먹어보고 여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오늘은 초량야구길에서 사뭇국밥을 먹기로 했다. 구수한 사뭇국밥을 호호 불어가며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머니테크 한겨울 녹이는 뜨거운 예금 열풍... 이자가 뭐길래 '고금리 안전지대로...'

코스피지수가 한때 연 고점 대비 20% 넘게 추락하는 등 격렬하게 요동치면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늘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19년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당뇨에 좋은 한 끼로
새해는 더욱 건강하게

부치지 못한 편지

꽃 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이규리 시인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2019년

더 큰 꿈을 위해 **KB국민은행**이
든든한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KB 국민은행

바이오기업, 새해 R&D성과 기대감 높다

글로벌 수요 쑥...기술중심 활약
임상 성공률·약효 뛰어나 '장점'

한울 'HL161' 등 글로벌 임상 순항
강스탤 파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새해를 맞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성과 증명을 가속할 전망이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커지면서 기술 중심 기업들의 활약상이 기대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19년에 바이오 기업들의 다양한 R&D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한울바이오파마는 주요 파이프라인인 자가면역 치료제 'HL161'과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글로벌 임상이 순항 중이다. HL161은 자기 산체를 공격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성 자가항체를 분해해 제거하는 새로운 작용 기전의 혁신 항체 신약이다. 완전 인간 항체를 이용한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 신약으로, 관절염이나 건선, 궤양성 대장염처럼 환자 수가 많고 치료제가 있는 질환이 아닌 시신 경척수염, 중증 근무력증, 천포창 등 희귀 중증 자가면역질환을 타깃으로 한다.

주요 바이오기업 2019년 예정 R&D 이벤트 *임상 a=전기, b=후기		
기업	파이프라인	이벤트
한울바이오파마	HL036	임상 3상 진입
팜트론	PT302(파킨슨)	임상 2상 진입
메지온	유테나필	임상 3상 결과 발표
셀리버리	iCP-파킨	독점적협상계약 종료
한울바이오파마	HL161	임상 2상 진입
제넥신	GX-188E	임상 2상 완료
제넥신	GX-47	임상 1b상 완료
알테오젠	ALT-P7	임상 1상 완료
알테오젠	ALT-P1	임상 2a상 진입
팜트론	PT302(비만)	임상 2상 진입
젤백스	GV1001	임상 2상 완료
강스탤바이오텍	퓨어스텝에이디	임상 3상 결과 발표
에이치엘비	아파티닙	품목허가 신청

한울바이오파마는 캐나다와 호주에서 HL161의 임상 1상을 마치고 내년 임상 2상을 시작한다. 중증 근무력증을 시작으로 적응증을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받아 출시 시기를 앞당기고 시장 독점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HL036은 미국 임상 2상을 성공리에 마쳤다. 임상 2상은 객관적 평가 변수인 징후와 주관적 평가 변수인 증상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기존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15% 미

만 환자에서 임상적 효과가 관찰된 것과 대비된다. 회사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1차 타깃 적응증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앞으로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증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스탤바이오텍은 세계 최초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텝에이디(Furestem-A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퓨어스텝에이디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자가면역 반응으로 유발하는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는 치료제다.

현재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유럽 임상 2a상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다. 2019년 하반기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토피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세 이상 환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유일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바이오 의약품인 '듀피젠트'는 연간 26~32회 반복 투여가 필요해 치료 비용이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퓨어스텝에이디는 1회 투여 치료제

로 환자 편의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의 특성상 현재까지 부작용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바이오솔루션은 핵심 R&D 파이프라인인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의 내년 상반기 국내 품목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카티라이프는 환자 본인의 늑연골에서 줄기세포를 채취, 증식한 연골전구세포를 작은 구슬 형태로 연골조직화한 제품이다. 연령층에 제한 없이 환자 범위가 넓고, 수술 및 회복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경쟁 제품과 차별점으로 꼽힌다.

골관절염이란 관절연골 소실과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이 악순환되는 질환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관절연골은 점차 마모돼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는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근본적 치료제는 출시되지 않았다.

한편,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중측 의료수요가 큰 질환의 신기술 기반 플랫폼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의약품시장 성장은 바이오 의약품이 견인하고 있다"며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고 임상 성공률과 약효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내달 7~10일 美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내년 기술수출 잭팟 ‘주인공’ 누가 될까

제약업계는 지금

50개국서 1500여개 기업 참가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메인트랙
대규모 수주계약 기회의 장 기대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대규모 기술 수출 사례를 낳은 JP모건 콘퍼런스에서 또 다른 ‘잭팟’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등 국내 2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번 JP모건 콘퍼런스에 초청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JP모건 콘퍼런스에는 50개국 1500여개 기업 관계자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참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도 메인 트랙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공장 가동 및 해외 수주 현황과 CMO(위탁생산) 경쟁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메인트랙 발표가 예정된 셀트리온은 ‘트루시마·허쥬마’

2019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참가 기업	
참가 형태	기업
메인트랙 발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발표	코오롱티슈진, LG화학,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1대 1 호스팅	에이비엘바이오, 한독, 강스탤바이오텍, 부광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미팅	파멘신, 제일약품, 올릭스, 신평제약, 나이백, 오스코텍, 제노스코, 폴루스, 필룩스, 알테오젠, 지트리비엔터, 크리스탈지노믹스, 톨젠, 카이노스메드

의 미국 출시 전략과 최근 공 들이고 있는 화학합성 의약품 사업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코오롱티슈진, LG화학,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한미약품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사 파이프라인 등을 설명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LG화학은 대사질환과 면역항암제 등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소개한다. 메디톡스는 선진국과 중국 진출 전략을 밝히고, 한미약품은 전임상을 포함한 연구·개발(R&D) 진행 상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비엘바이오, 한독, 강스탤바이오텍, 부광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등 1대 1 호스팅을 진행한다. 파멘신, 제일약품, 올릭스, 신평제약, 나이백, 오스코텍, 폴루스, 필룩스, 알테오젠, 크리스탈지노믹스, 톨젠 등은 미팅을 추진한다.

JP모건 콘퍼런스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

업의 대규모 기술 수출 기회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초 JP모건 콘퍼런스에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소개한 유한양행은 11월 약선과 1조40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지속해서 콘퍼런스에 참석해온 한미약품은 2015년 ‘랩스캐버리’ 플랫폼을 선보이고 그해 11월 랩스캐버리 기술이 적용된 퀴텀프로젝트로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와 5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 중 파이프라인이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 기술수출을, 후기 단계에 있는 경우 마케팅 파트너 혹은 수주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수출을 이뤄낸 후 JP모건 콘퍼런스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참가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지켜볼 만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건강한 픽템

동국제약 ‘치센 캡슐’

추워지면 더 심해지는 ‘치질’ 항문주변 혈액순환 장애 탓!

기온이뚝떨어지면서 겨울철 치질 질환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치질은 항문혈관의 문제로, 항문 주변의 정맥에 피가 몰려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 낮은 기온으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순환



혈관 탄력·순환 개선...항염 작용
2주 복용시 통증·출혈 80% 효과
증상 방지말고 신속하게 관리

면 치질은 전 인구의 75%가 경험한다. 치질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초기에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중증으로 발전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말연시에는 평소보다 잦은 음주와 고지방식 섭취로 항문 출혈과 통증·가려움증 등 치질 증상이 심해진다.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3월까지 치질 수술 건수가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의 수술 건수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질은 항문 혈관을 확장하는 자세나 생활습관이 중요한 원인인 만성질환이자 생활습관병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발표 내용에 따르

동국제약의 ‘치센 캡슐’은 유럽에서 개발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구조인 디오스민 성분 치질 치료제이다. 혈관 탄력과 순환을 개선하고 항염 작용을 통해 치질로 인한 통증, 부종, 출혈, 가려움증, 불편감 등을 개선해준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치질이 발병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겨울철에는 항문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고, 질환을 숨기거나 증상을 방지하지 말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만 12세 여학생,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세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2005년 생 여성 청소년들은 31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한 해 약 35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및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서비스를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차 접종 대상인 2005년 생 중 접종하지 않은 14.2%(약 3만 명)의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내년 2차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 반응을 얻는 데 필요한 접종 횟수가 백신에 따라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해당 18만 원에 이르는 접종 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4일 열린 2018년 제4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HPV

올해 안맞으면 접종 횟수 2→3회로
회당 18만원 접종비용도 본인 부담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된 후 신고된 이상 반응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증 이상 반응은 신고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것이 심인성 반응으로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39건·51%)이었다.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은 “HPV 부작용 우려로 자녀의 접종을 주저하는 보호자들은 지난 3년간의 이상 반응 신고자료와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참고해 안심하고 정부지원 기간 안에 접종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에는 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2회)이 무료지원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인문 ‘국어 25%’ 사회·자연 ‘수학 35%’ 반영



경희대학교는 서울캠퍼스 개설 학과는 가군에서, 국제캠퍼스 개설 학과는 나군에서 모집한다. 인문·사회·자연계열 전 학과에서 수능 100%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성적의 경우 표준점수(또는 백분위) 단순 총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반영비율이 높은 영역의 성적에 따라 수능 환산 점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인문계열은 국어 35%, 수학 25%인 반면, 사회계열은 국어 25%, 수학 35%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만 반영되며 35%로 비율이 높다. 한편 한국사의 경우 수능 등급별 본교 환산점수를 활용하며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1~3등급까지 만점(200점), 4등급부터 5점씩 감점된다. 자연계열의 경우 1~4등급까지 만점(200점)이며, 5등급부터 6점씩 감점된다. 영어의 경우도 수능 등급별 본교 환산점수를 활용하는데 모든 계열에서 1등급까지 만점(200점)이며, 2등급부터 감점된다.

경희대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영역의 비중이 35%로 높다. 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수학영역의 비중이 전체의 35%이다.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수능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르므로



수학성적에 따라 유리한 계열을 선택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학영역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 사회계열 모집단위는 모두 가군에서 선발(국제학과 제외)하므로 군별 지원전략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어영역의 경우 반영비율이 15%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1등급과 2등급 간의 차이가 8점으로 비교적 큰 편이다.

영어영역에서 2등급을 받은 학생은 다른 영역의 성적이 좋다면 이를 감안해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윤섭 입학처장

의과대 인·적성 면접…영어 2등급부터 감점



고려대학교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일반전형)만으로 612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다만 의과대학은 별도의 배점이 없는 결격 판단용 ‘적성·인성면접’을 추가로 실시하며, 체육교육과와 디자인조형학부는 수능 70%와 실기 30%,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80%와 군면접 및 체력검정 20%를 합산해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이달 31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문계열 모든 모집단위,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의 경우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 2과목, 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각각 약 36%, 탐구영역은 약 29%의 비율로 반영된다.

자연계 모집단위(가정교육과, 간호대학, 컴퓨터학과 제외)의 경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탐구 영역은 31%, 수학 영역은 38%의 비율로 반영된다. 간호대학과 컴퓨터학과는 모집인원의 50%를 각각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해 선발한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든 모집단위에서 영어는 등급별 감점,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영역의 경우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되며(1점 감점) 등급이 높아질 때마다 2점씩 추가 감점된다. 한국사 영역은 인문계 1~3등급, 자연계 1~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을 가산하고 해당 등급에서 8등급까지는 한 등급이 높아질 때마다 0.2점씩 낮춰서 가산한다.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나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제2외국어·한문영역이 탐구 과목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양찬우 인재발굴처장

471명 선발…한국사 영역 등급별 가산점



덕성여자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모집은 가군과 나군에서 수능 100% 전형과 예체능전형 두 가지로 471명을 뽑는다. 올해 정시모집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정하고 한국사영역의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가군에서는 수능 100%전형으로 187명, 예체능전형으로 29명을 뽑으며, 나군에서는 수능 100%전형으로 191명, 예체능전형으로 64명을 선발한다.

수능 100%전형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학과와 생활체육학과를 제외한 자연과학대학 4개 학과 및 의상디자인학과에서 시행된다. 예체능전형은 생활체육학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에서 진행된다.

예체능전형 모집단위 중 생활체육학과는 수능 40%와 학생부·실기고사 각각 30%씩을 반영한다. 동양화과, 서양화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는 수능 30%와 실기고사 70%를 반영한다.

생활체육학과와 학생부는 국어·영어·사회 교과를



대상으로 학생이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석차등급을 반영한다. 1·2학년 각 30%, 3학년 40%로 학년별 가중치를 두며 고등학교 간 학력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성적을 반영할 때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이달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최초 합격자는 2019년 1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중 입학처장

인문·자연계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



서강대학교 정시모집은 가군에서만 선발하며 원서 접수는 이달 31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4일간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인문·자연계열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지원 가능하다. 정시모집은 크게 일반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인문·자연 계열 구분 없이 전 모집단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학(가), 과학탐구영역을 응시한 학생도 인문계열 지원이 가능하며, 수학(나), 사회탐구영역을 응시한 학생도 자연계열에 지원이 가능하다. 수학(가)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취득표준점수의 10%를 가산하는데, 상대적으로 표준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수학(가)의 표준점수를 보정해주었다.

320명(수시 이월 인원 미포함)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은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계열별로 수능에서 지정된 3개 영역의 성적(90%) 및 학생부 비교과



(10%)를 합친 성적에 영어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해 선발한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영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해 반영하지 않는다. 탐구영역은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므로 정시원서 접수 전 서강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산점 10%가 반영되는 학생부 성적은 비교과영역(3학년 2학기까지의 출결 및 봉사)만 반영한다. 사고(무단)결석이 3년 내 5일 이하고, 봉사활동이 20시간 이상이면 100점(만점)으로 반영된다.



김진화 입학처장

가·나군, 일반·특별전형으로 613명 선발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립대는 대학 경쟁력을 진단하고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상상선도’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학교)라는 향후 100년 비전을 선포했다.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相), 교육과 연구를 생각(想)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相) 협력의 가치를 생각(想)한다는 의미다. 상생(相生)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先導)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 4년제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의 통섭형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신설된 ‘자유융합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 등은 폭넓은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립대는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에 힘쓰고 있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전년도 대비 59명이 축소된 613명을 모집한다. 가군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581명, 나군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32명이다. 가군 모집인원은 음악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일부(23명)의 선



발시기가 수시모집으로 바뀌면서 다소 줄었고, 나군 모집인원은 도시행정과 선발을 나군에서 실시하면서 늘었다.

서울시립대 정시모집은 크게 일반전형(인문·자연계열, 예체능계열)과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나뉜다. 올해는 ‘인문계열II’ (경제학부·세무학과·경영학부)가 ‘인문계열I’보다 수학 비중을 높이도록 수능반영 비율에 차이를 뒀다. 예체능계열 일반전형의 경우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 다르다.



우수영 입학처장

수능 100% 반영…한국사 3등급까지 만점



서울여대는 1961년 개교 이래 생활 공동체 기반의 ‘바름인성교육’을 지속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PLUS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 △대학 특성화 분야 발굴 및 집중 지원 △SW 기반 혁신적 공학교육 운영 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고 있다.

서울여대는 모든 전공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론 ‘전공교육 공통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왔다. 지난해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로 로드맵 구축, 창창 팩토리, IP창업상담실 등 다양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교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가·나·다군에서 모두 신입생을 선발하며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학생부 등 반영 없이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한다.

수능 한국사는 가점제로 반영하며 3등급까지는 만점을 부여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제외)·자율전공학부(자연)는 과학탐구영역에서 10% 가산점, 수학과·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수학 ‘가’영역에서 10% 가산점을 준다. 영어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등급별 백분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더불어 모든 모집단위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학과에 따른 수학 가·나, 탐구영역 등 필수 응시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응시한 과목의 백분위를 그대로 적용해 지원할 때 교차지원자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홍정일 입학처장

618명 모집... 예체능 제외 수능 100% 반영



성신여대는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진로, 취·창업 지원 기능을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해 제공한다. 또 기업체에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산학협동인턴십, 재학생직무체험, 서울시 청년일자리 사업 등의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미국 오리건대학,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영국 포츠머스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등 42개국 207개교 해외대학·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또 2016년 학제 개편을 단행해 지식서비스공과대학을 신설하고 헬스앤웰니스 컬리지(Health & Wellness College), 뷰티 생활산업국제대학 등 단과대학을 확대 개편했다.

올해는 정시모집에서 정원 내 일반학생 정원으로 가군 445명, 나군 136명, 다군 37명 등 총 618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수능만 100% 반영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는 기화균형선발 전형(가·나군) 15명을 선발하며, 재직자 전형은 수시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전형요소의 구성, 수능성적 반영 방식,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과목 반영비율 등 큰 변동은 없다. 다만 학과별로 수능 지정영역별 반영비율이 달라 수능성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교차지원을 허용하지만,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지정영역 미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한편, 성신여대는 정시모집 성적에 따라 다양한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한다.



윤진호 입학처장

자연계열2, 10개 모집 단위 교차지원



올해는 정시모집을 통해 가·나·다군에서 총 1055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한다. 계열에 관계없이 각 모집군에 모집단위를 분산, 선발해 지원자들의 학과 선택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정시모집 특징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수능 100% 선발(실기고사 전형 제외) △교차지원 대폭 허용(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포함 10개 모집단위) △실기고사(영화예술 전공) 전형방법 변경 등이다.

정시 일반전형에서 인문·경상계열은 국어, 수학(가·나), 영어, 탐구(사회·과학 2과목)를 반영하고, 자연계열1은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반영한다. 자연계열2는 국어, 수학(가·나), 영어, 탐구(사회·과학 2과목)를 반영하고, 수학 가와 과탐을 응시한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준다. 한국사 가산점은 전 계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계열마다 달라 국어와 수학 성적을 고려해 유리한 모집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교차지원도 대폭 허용한다. 교차지원이 가능한 자연계열2는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등 10개다. 특히 일반전형으로 54명을 선발



하는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는 자연계열은 물론 인문사회계열 주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송실대는 베어드 입학우수 장학제도에 따라 특정 학과(부)가 아닌 모든 학과(부)의 성적우수 신입생에게 △4년간 장학금 △학업지원비(월 40만 원) △기숙사 4년 무료 제공 △교환학생 파견 시 1000만 원(최대 2학기) 지원 △세계 최우수 대학 박사과정 진학 시 2년간 총 4000만 원 지급 △세계 최우수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교수채용 우선 배려 △단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및 중국어 단기어학연수 등을 제공한다.



오용락 입학처장

수능 영어점수 절대평가로 반영



연세대학교는 2019년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으로 1011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미선발 인원까지 포함하면 1300명 내외로 예상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 반영하지만 동점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 정량화 점수를 반영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31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다.

2018년도 입시와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점수는 절대평가로 반영한다. 1등급을 100점으로 배정하고 등급하향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이다. 다만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정시모집은 서류평가(70%)와 면접평가(30%)를 합산해 선발한다.

2019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서도 공과대학 글로벌 융합공학부 학생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5명이고, 일반전형 자연계열 모집단위와 동일한 방식의 전형이 이뤄진다.

일반전형 중 국제계열, 예체능계열 등은 별도의 전형을 실시한다. 우선 국제계열은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구술시험을 진행한다. 체육교육학과는 실기시험 3종목(왕복달리기, 제자리뛰기, 메디신볼던지기)과 면접구술시



험이 예정돼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체전을 포함한 전국대회 3위 이상의 입상 경력이 있는 자는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선택실기시험 10종목(농구, 배드민턴, 골프, 축구, 태권도, 유도, 무용 등) 중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고, 전국 규모 대회 이상의 입상 경력이 있는 자는 선택실기시험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능계열은 전공에 따라 실기시험 예심, 본심을 실시하거나 일괄 합산전형으로 실시한다. 정시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태호 입학처장

계열별 통합선발... 상위 50% 전액 장학금



이화여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의예과 및 예체능학과를 제외한 모든 인문, 자연계열은 계열별 통합선발로 모집한다.

정시 수능전형에서 계열별 통합선발은 학과별 선발에 대비되는 선발방식으로, 전공구분 없이 통합해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 모집인원은 인문계열 201명, 자연계열 181명이고, 원서 접수는 이달 31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다.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입학 후 1학년 말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체육과학부 제외) △스크랜튼대학(융합학부·뇌·인지과학전공, 국제학부) 중에서 자유롭게 각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계열별 통합선발 입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인원 및 성적 제한 없이 희망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인문·자연 계열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하다. 최초 합격자의 상위 50%에 해당하는 학생은 4년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과 수도권지역 거주자



를 포함해 입학생 전원에게 기숙사 입사 기회가 주어지고, 멘토링 등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이화여대는 계열별 통합선발 이외에도 정시모집에서 인문계열 6명과 자연계열 45명 등 총 51명의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 수시모집에서만 선발할 예정인 사범대학 각 학과 및 간호학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정시모집으로도 선발할 예정이다. 정시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진 입학처장

일부학과 제외 전 분야 전공 개방모집



중앙대학교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나·다군을 통틀어 총 1195명을 선발한다. 가군에서는 인문대학, 의학부 등 385명을, 나군에서는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산업보안학과 등 469명을 선발한다. 또 다군에서는 경영경제대학, 창의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간호학과 등 341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이달 31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다.

이번 정시모집은 일부 학과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전공 개방모집(단과대학 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공 개방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합격자 발표 시 1학년 진급전공을 신청하게 되고, 1학년 동안 전공별 탐색과정을 거쳐 2학년 진급 시 전공 학과(부)가 결정된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40% △수학(가·나) 40% △사회/과학탐구 20%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가) 40% △과학탐구 35%를 반영한다.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체육교육과



는 실기 없이 수능 80%, 서류평가 20%가 적용된다.

수능 일반전형으로 산업보안학과(자연), 예술공학대학에 최초합격한 전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하는 특성화학과인 경우, 일정 성적 이상으로 합격한 자에게 1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이 2학년 진급 시 특성화학과로 진학하면 나머지 3년에 대해서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백광진 입학처장

3개 전형 총 1185명 수능 위주 선발



한국외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3개의 전형을 모두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를 반영한다. 서울캠퍼스는 일반전형 가·나군에서 각 168명과 346명을 선발하고, 글로벌 캠퍼스는 가·나·다군 모두에서 모집해 총 67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두 캠퍼스를 모두 합치면 선발인원은 총 1185명이다. 원서 접수는 이달 31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인문계열은 수능 국어, 수학(가·나), 사회/과학탐구 영역 반영 점수, 영어 영역 환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뽑는다. 글로벌캠퍼스 자연계열은 수학(가), 과학탐구 영역 반영 점수, 영어 영역 환산 점수 순으로 동점자를 처리한다.

정원 외 선발에 해당하는 특별전형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나군, 글로벌캠퍼스는 다군으로 통합 모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수능 100%,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수능 70%+서류평가 30%를 반영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서류 평가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를 전형자료로 사용한다. 지원자 1인의 서류를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별전형 역시 동점자가 발생하면 수능 총점이나 과목별 점수를 토대로 동점자를 가린다.

이번 정시모집의 특징은 서울캠퍼스의 LT학부와 글로벌캠퍼스의 바이오메디컬공학부를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겨 선발한다는 점이다. 글로벌캠퍼스 자연계 모집단위는 가·나·다군에서 고루 선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혜 입학처장

“PB 커리어 20년 비결요? 기본에 충실함이죠”

우리證 합병 후 첫 女임원…유현숙 NH증권 WM지원본부장

**1985년 럭키증권 입사, 2000년대 초 PB 입문 ‘터닝포인트’
성별 떠나 할 일 다할 때 좋은 평가, 그게 다시 동기부여 역할**

“어느 자리에서든 성별을 떠나 내 할 일을 다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일한 만큼 인정받았던 것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다.”

유현숙(51·사진) NH투자증권 WM지원본부장은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년 ‘프라이빗뱅크(PB)’ 스토리에 대해 이처럼 회고했다. 유 본부장은 최근 진행된 NH투자증권 인사에서 우리투자증권과 농협증권 합병 후 첫 여성 임원에 발탁됐다. 그는 ‘최초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다소 부담스럽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이미 강남에서 많은 여성 PB들이 근무하고 있고, 여성 지점장이 계속 배출되고 있다”면서 “NH투자증권이 상대적으로 PB 개념을 빨리 도입한 덕에 제가 여

성 임원으로 발탁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증권업에 발을 들인 것은 1985년 럭키금성그룹(구 LG) 공채로, 럭키증권으로 입사하면서다. 입사 이후 지점 영업을 하다 2000년대 초반 PB라는 업무에 입문한 것이 증권업 커리어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당시만 해도 PB라는 개념이 생경하던 시절이었다. PB는 개인 고객상가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유 본부장은 “2001년 고객자산관리 개념으로 회사 내에 PB 브랜드인 ‘골드넷멤버스’가 출범했고, 2002년부터 골드넷멤버스 강남지점에서 PB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그 사이 회사 PB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으로서 PB 업무에 어려움은 없었냐는 질문에 “회사생활을 하면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지어서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면서 “일

한 만큼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이 동기부여가 됐고,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것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년 가까이 PB로 커리어를 유지했던 비결에 대해 ‘기본에 충실함’을 꼽았다. 유 본부장은 “항상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고객 상담에 도움이 될 만한 배움을 놓지 않았다”면서 “그 덕에 대리 떠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말을 아직도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내 여성 임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매사에 식지 않은 열정을 지니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본부장은 자산관리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WM지원본부장을 맡게 되면서 본사에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직접 발로 뛴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고객과의 접점인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니즈가 반영된 WM지원본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계시판

삼양그룹, 공동모금회에 성금 3억 기탁
삼양그룹은 27일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3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의 기초 생계비와 필수 의료비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삼양그룹은 2001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한라, 임직원 걷기 캠페인으로 기부금



한라그룹은 임직원들이 ‘워크투게더(Walk Together) 캠페인’에 참여해 직접 모은 기부금 총 4593만 원을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투게더 캠페인은 참여자가 1만 원을 기부하고 스마트폰용 기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회사 측이 추가로 기부하는 활동이다. 한라그룹 임직원들은 10월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6주간 지구 두 바퀴에 해당하는 8만km를 걸어 이번 기금을 조성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콜롬보서 봉사활동



대한항공은 사내봉사단 회원 14명이 17일부터 24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 외곽의 소외 계층 거주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17년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겪은 지역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면 상습 침수가 되는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봉사단은 일주일 동안 현지에서 홍수로 파손된 주택을 보수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 활동을 위한 비용은 회사 지원금과 사내 다수 봉사단 회원들의 성금을 통해 마련됐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부음

▲이상순 씨 별세, 황병욱(미래에셋생명 팀장) 씨 모친상 = 27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9일 오전 6시, 031-780-6170

▲이정옥 씨 별세, 김형운(시사저널 국장·전 문화일보 부장) 씨 모친상, 최명옥(용인농업기술센터 팀장) 씨 시모상 = 26일,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5호, 발인 28일 오전 8시 45분, 031-219-6654

▲박영배(전 진주교육대학 교수) 씨 별세, 박재현(MBN 전무)·석민(인천 영상의학센터 병원장)·석삼(박석삼의원 원장) 씨 부친상, 반해광(에버환경대표) 씨 장인상 = 27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29일 오전 5시, 02-2258-5940

▲김영순 씨 별세, 남윤희(전 KT&G·관희(전 삼성코닝 부장)·문희(시사인 선임기자)·준희(세움 아이엔디 대표)·미경(전 여성신문 기자) 씨 모친상, 윤성환(에스원 전략사업팀) 씨 장모상 =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28일 오전 7시, 02-2258-5940

창의재단 이사장 안성진 성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신입 이사장에 안성진(사진)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를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8일부터 3년간이다.



안성진 신입 이사장은 성균관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이 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 자랑스러운 효성인’ 오동우 효성重 ESS사업부장

수주 확대로 시장점유 1위 공로

효성은 27일 마포 본사에서 ‘2018년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상’ 시상식을 열고 ESS(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 확대를 이끌어 온 오동우(사진) 효성중공업㈜ 사업부장을 올해의 효성인으로 선정, 상금 50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오 부장은 태양광연계 ESS, 피크저감 ESS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 국내 ESS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오 부장은 태양광

EPC업체, ESS투자사업자, 배터리 공급업체 등 다양한 사업 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 수주 확대를 이끌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8년 4분기 자랑스러운 효성인상’ 시상도 진행됐다. 효성은 기술 부문에 김병권 효성중공업㈜ 기전PU 차장, 연구 부문에 김경수 효성기술원 부장, 지원 부문에 이원선 베트남법인 부장을 선정하고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협력업체 한일차단기㈜, 신건설주에는 각각 ‘올해의 효성인상 특별상’ 상금 20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조현준 회장은 “새해에도 임직원 모두가 VOC(Voice of Customer)를 반드시 실천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고객을 중심에 둔 자기 혁신을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이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승진) △통상교섭본부장실 서기관 김남혁 △산업기술정책과 서기관 한대룡 △산업기술정책과 기술서기관 최수연 △산업기술개발과 서기관 성시내 △자동차항공과 기술서기관 박일철 △전력산업과 기술서기관 권승목 △신북방통상총괄과 서기관 강연주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서기관 고장원 △세계무역기구와 서기관 김홍수 (수석전문관 승진) △구주통상과 박재용 △신북방통상총괄과 김현진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세월호추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이안호 △항로표지과장 송중준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김봉섭 <도원국장 승진> △강원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최경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과장 박병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서장 전보) △감사실 김병수 △기획조정실 위봉수 △기업금융처 이창섭 △진단기술처 이영철 △제도약성장처 박노우 △수출마케팅사업처 김상구 △창업지원처 우영환 △성과보상기획처 국광태 △성과보상사업처 허재영 △수도권경영지원처 석동인 △서울지역본부 이종철 △서울북부지부 황성익 △경기지역본부 주상식 △인천지역본부 김준근 △경기서부지부 윤용일 △강원지역본부 권홍철 △강원영동지부 최천세 △충북북부지부 문현선 △광주지역본부 김홍선 △전남동부지부 박홍우 △부산지역본부 권오민 △경북지역본부 황희경 △경북동부지부 홍병진 △경북남부지부 이상국 △울산지역본부 박정근 △경남지역본부 김이원 △경남동부지부 류지민 △제주지역본부 최학수 △청년창업사관학교 김은광 △호남연수원 김양호 △대구경북연수원 송경준 <1급 승진> △혁신전략실 이수형 △제도약성장처 최학수 △기업인력지원처 김종균 △경기서부지부 주상식

◆한국도지주매곡사 (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이재혁 △도시재생본부장 한병홍 △건설기술본부장 한효태 (부서장) △비서실장 변한수 △홍보실장 김재경 △미래혁신실장 오영오 △감사실장 서남진 △안전기획단장 장철국 △기획조정실장 이창희 △경영관리실장 공영규 △사업계획실장 박정우 △재무처장 갈창훈 △판매보상기획처장 김은준 △총무고객처장 김영옥 △인사관리처장 김요섭 △노사협력처장 하승호 △법무실장 서창원 △경영정보처장 김미숙 △인재개발원장 이재구 △계약단장 조경숙 △주거복지기획처장 윤복산 △주거복지사업처장 김경철 △주거복지지원

처장 노영봉 △주거자산관리처장 박철홍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조인수 △중앙공동주택관리본부장 정조영위사무과장 주희석 △스마트도시계획처장 박성용 △스마트도시개발처장 류동준 △공공택지기획처장 임준 △공공택지사업처장 정은구 △도시사업처장 고화권 △도시기반처장 전종수 △공간정보처장 윤행호 △사업영향평가단장 권오연 △도시경관단장 김선경 △공공주택기획처장 강동렬 △공공주택사업처장 서호수 △공공방역사업처장 오주희 △주택설비처장 이재현 △스마트주택처장 최육만 △주택원가관리처장 신경철 △고객품질혁신단장 오주현 △국책사업기획처장 이규호 △산업단지처장 안병구 △금융사업기획처장 한병호 △공공지원인대사업처장 손순금 △남북협력처장 이병만 △해외사업처장 이정관 △크웨이스트사업단장 황필재 △도시재생계획처장 유창형 △도시재생뉴딜사업처장 박동선 △도시정비사업처장 김백용 △청년주택계획처장 유수철 △청년주택사업처장 박효열 △국유재산사업처장 이용삼 △도시건축사업단장 이용준 △단지기술처장 임동희 △주택기술처장 김기식 △건설관리처장 권혁례 △기술심사처장 이명하 △동반성장처장 변인영 △연구지원처장 남기호 △서울지역본부장 홍현식 △서울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박봉규 △서울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김종환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백승의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래형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장 하재기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배호웅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장 윤상용 △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황정섭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김희중 △인천지역본부장 장중우 △인천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송준경 △인천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강한수 △인천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박만영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종호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방명수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장 김인기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이영중 △인천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 오승식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이정옥 △경기지역본부장 장종모 △경기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이원재 △경기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박용민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김형식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윤영중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권대혁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장 이지훈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 사업관리단장 이정관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 김옥환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원용 △경기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박광식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문정인 △부산울산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황수호 △부산울

산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강진정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사업단장 김철수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우윤식 △강원지역본부장 심형석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권세연 △충북지역본부장 경지호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진태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화목 △대전충남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김용태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배대현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순길 △전북지역본부장 임정수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권창호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백인철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신복식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이재로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전용암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정진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송진선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이대영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성호 △경남지역본부장 오재영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윤병주 △제주지역본부장 김희수 △세종특별본부장 김수일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조해식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박준홍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김종필 △미군기지본부장 방정인 △미군기지본부 건설사업단장 위성복

◆한국에너지공단 <승진> △1급 김동수 나을영 우영만 △2급 이한우 윤영상 김희철 김중호 △3급 김도균 이윤경 김익표 양덕환 김진호 노경남 허경 박경순 전관택 김상준 (부서장 전보) △회계운영실장 나을영 △유요리정책실장 이재용 △자금융자실장 김주완 △에너지보안실장 최훈 △기획조정실장 이재훈 △인재개발원장 류진형 △통합운영센터장 주권 △경영혁신본부 인사노무처장 김범호 △경영혁신본부 상생경영처장 이상용 △경영혁신본부 경영지원처장 여태수 △여객서비스본부 여객서비스처장 신가균 △여객서비스본부 교통서비스처장 이상욱 △운항서비스본부 운항시설처장 배영민 △운항서비스본부 수하물운영처

장 황석 △시설본부 에너지환경처장 김한선 △미래사업추진실 복합도시사업처장 김용철 △항공보안실 항공보안처장 김한태 △항공보안실 경비보안처장 이상조

◆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 3급 승진> △전략기획부 최유현 △재무기획부 박재욱 △CIB기획부 문영서 △BNK금융경영연구소 박재현 <BNK금융지주 4급 승진> △CIB기획부 염동근 <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정관모전지점 노원호 <부산은행 3급 승진> △투자금융부 감효서 △연서지점 권충희 △학장동지점 김경록 △북곡동지점 김기열 △서창지점 김미경 △여신기획부 김병욱 △영업부 김상근 △디지털금융개발부 김성태 △당행지점 김철민 △연지동지점 김홍복 △준법감시부 남정호 △녹산중앙지점 도우섭 △호찌민지점 문동권 △단막동지점 민경오 △반여동금융센터 배준호 △인사부 서성필 △구서동금융센터 석태현 △여신심사부 송정호 △비서실 신훈섭 △부전동금융센터 양재영 △해운대금융센터 이동민 △성수동지점 이두환 △검사부 이상호 △시화공단지점 이정훈 △여신기획부 이주현 △마케팅추진부 이학수 △팔송지점 정창렬 △프로세스혁신부 주동희 △연산동금융센터 최혁준 △영도동상동지점 최현숙

◆오리온 그룹 <한국 법인 상무 승진> △경영지원부문장 신호정 △영입1부문장 김기태 △연구소 글로벌지원팀장 정호영 △CSR실현부문장 정재훈 △AGRO부문장 권혁용 <베트남 법인 상무 승진> △영업부문장 최경석 <중국 법인 상무 위촉 변경> △생산부문장 이상수 △광명공장장 임영준

◆SM그룹 <부회장 승진> △대한해운 김철봉 (부사장 승진) △경남기업 박석준 △크리코엔터프라이스 고재덕 (전무 승진) △우방산업 박홍준 △동아건설산업 흥창기 (상무 승진) △동아건설산업 신성동 △남산알미늄 김중혁 △경남모직 GMB사업부 박영길 (이사 승진) △대한해운 우준호 배연성 △SM상선 이윤재 △KLCSCM 구자은 △티케이케미칼 조유선 △남산알미늄 자동차사업부문 홍관표 △SM중공업 김기열 (이사대우 승진) △삼라 김효연 △동아건설산업 갈태현 성낙원 △경남기업 성명주 △대한해운 우기재 △SM상선 신현섭 최광국 문상필 △대한상선 조재현 △티케이케미칼 한영균 권혁원 이상숙 △남산알미늄 자동차사업부문 민경서 △한일개발 장경철 △SM생명과학 손현우

◆한겨레신문 <팀장(출판국 한겨레21부)> △편집팀장 구둘래

◆데일리스포츠한국 <승진> △판매이사 우승필 △편집부장 이수경 △생활경제부장대우 유승철



‘미국 우선주의’하에서 2008년과같은 미국 주도의 긴밀한 국제공조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가운데 어디에선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 본격화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 유가의 가파른 하락이 하나의 조짐이다. 한국 경제의 2%대 성장은 수출 호조세 지속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여건이 악화하면 수출 부진은 불가피하다.

여느 때처럼 각처에서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이 나왔다. 대부분 2%대 중반의 숫자를 내놓고 있다. 필자도 과거 경제 전망 분야의 일을 했기에 연말, 특히 경제 상황이 불투명 할수록 전망의 수정구(水晶球)를 보는 증세가 도진다. 최근 세계 주요 주식시장 급락이 금융시장 전반과 실물분야로 이어지면 2%대 성장 전망이 크게 어그러질 개연성이 높다. 국내외에서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쉽게 나아지지 않을 조짐이 보인다.

한국 경제에는 지난 한 세대 동안 큰 위기가 두 번 있었다. 그런데 두 위기 상황은 각각 내부, 혹은 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필요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경제가 매우 취약해진 가운데 환율 및 거시경제 정책 실패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선진국 경제 사정이 양호했다. 급락한 원화 환율에 힘입은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증했고, 이는 수출 호황으로 이어지며 위기 상황이 끝났다.

두 번째가 전대미문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시차를 뒤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등 서방 선진국들의 사정이 상

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위협이 되는 큰 약재가 없었다. 제일 큰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이웃 경제 대국 중국의 사정이 양호한 덕에 위기 발생 직후 초기 충격파가 상당했음에도 빠르게 벗어나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유지했다.

내년 이후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을 보자. 2008년 대항 위기의 진원지이며 신·구 정부 교체기임에도 경제정책 지도부가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하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특히 G20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주도하며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했다. 지금 미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이다. 본인이 몇 달 전 임명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해임을 논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무절제한 행보는 지난 2년간의 돌발적 언행에 익숙해진 사람들과 지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이달에도 연준이 예정했던 금리 인상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 견조하다. 실업률은 수십 년간 최저 수준이며 임금이 오르고 소비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가 호황임에도 주식시장이 급락하

는 것은 투자자들을 겁먹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단행된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올해 주가가 급등했지만 향후 기업 실적 전망이 불투명해 주가가 조정받는다라는 것이 부분적인 설명이다. 더 어두운 설명은 향후 특검 결과 등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협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임기응변적 계산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이다. 그렇다면 파괴력이 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앞으로 부정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통령이 대응할지 예상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연방정부 휴업(셧다운)은 지지자 결속을 위한 정치적 계산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국경 장벽 예산을 늘리라고 섣달을 단행했다. 또 주가 상승을 자신의 성과로 여기는 트럼프는 근래 주가 하락을 금리인상 탓으로 여기며 연준을 비판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의 최후의 보루가 중앙은행인데,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재무장관의 무마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 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하에서 2008년과 같은 미국 주도의 긴밀한 국제공조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가운데 어디에선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 본격화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 유가의 가파른 하락이 하나의 조짐이다. 한국 경제의 2%대 성장은 수출 호조세 지속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여건이 악화하면 수출 부진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과 취약 계층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올해 내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쁜 정책이라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의 미조정으로 좋은 정책이 된다고 우기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라면 우선 차를 갓길에 멈춰 안전하게 고속도로에서 나올 생각을 해야 함에도 속도를 좀 낮춰 운행하겠다는 형국을 연상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정부 지출을 제외한 민간 소비와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선방했다 할지 몰라 걱정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루 만에 잃어버린 내 처음 샤프펜슬은 빨간색이었다. 색깔까지 기억하는 것은 짝이 “왜 남자가 빨강이야?”하고 물어본 것이 또렷하게 생각나기 때문이다. 요즘은 남자가 붉은색 계열의 물건을 사용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40년 전에는 색상만으로도 남자 것 여자 것을 구분하고 있었다.

만년필의 세계 역시 색상으로 여성용과 남성용을 구분했던 적이 있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뚜껑이 크고 몸통이 짧아 분수로 치면 가분수인 일명 ‘빅캡 만년필’이 유행했다. 당시 사람들은 평상시엔 짧지만 뚜껑을 뒤로 쏘으면 길어지는 이 만년필을 와이셔츠 상의 주머니에 꽂고 다녔다.

이 만년필에 남성용과 여성용의 구분이 있었다. 분홍, 빨강, 아이보리, 하얗에 나비 또는 꽃 그림이 있는 것들은 여성용이었고 이보다 좀 크고 겹진 것은 남성용이었다. 사실 만년필이 만들어지고 한참 동안 여성용은 별도로 없었다. 보통 남성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한 치수 작은 학생용이 곧 여성용이었다.

그러던 중 1910년대 새로운 만년필이 등장했다. 만년필 뚜껑의 꼭대기에 회중시계처럼 동그란 고리가 달려 있어 ‘링 톱(ring top)’이라고 불린 만년필이었는데, 옷에 주머니가 없어 휴대가 불편했던 여성들에게 안전맞춤이었다. 여성들은 이 만년필을 회중시계처럼 줄을 연결해 핸드백에 넣거나 목에 걸었다. 이런 수요가 늘자 만년필 회사들은 딱히 여성용이라고 하지 않던 것을 여성이 선호한다고 광고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성용으로 한정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여성용 만년필의 등장과 여성의 사회 진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1920년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완전히 확립된 이후에 등장한 만년필을 보면 이 점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1922년 파커사는 ‘레이디 듀오파드(Lady duofold)’를 출시하는데 이것은 ‘여성이 선호한다’ 등의 소극적 표현이 아니라 대놓고 여성 만년필이라고 이름 지어 내놓은 것이다.

이것이 성공했을까? 성공 여부를 알아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라이벌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다. 1920년대 파커의 돌도 없는 라이벌은 셰퍼이고 그다음이 워터맨이었다. 셰퍼를 보면 1925년까지만 해도 ‘for women’이라는 것이 있을 뿐 레이디라는 만년필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1926년이 되면 레이디 라이프 타임이 등장한다. 1~2년이 아니라 몇 년이지나 따라 한 것을 보면 아주 큰 성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1달러 정도에 저렴한

펜을 만들던 Ingersoll Dollar 만년필 회사에서도 1927년 레이디스(Ladies)라는 이름의 만년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레이디 만년필은 점차 자리를 잡아간 셈이다.

당시 가장 큰 회사였던 보수적 성향의 워터맨은 1920년대 내내 레이디 만년필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29년 회사의 명운을 걸고 만든 새로운 최상위 라인인 퍼트리션(Patrician) 만년필에도 파커나 셰퍼처럼 레이디 만년필은 없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회사도 대세를 거스를 순 없었다. 워터맨사는 1930년 퍼트리션보다 크기는 작고 밴드와 클립은 가늘고 짧은 레이디 패트리샤(Lady Patricia)를 내놓는다. 워터맨까지 레이디 만년필을 내놓게 되자 여성용 만년필은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된다.

요즘은 남성용, 여성용의 구분이 있을까? 없다. 나는 분홍색 만년필을 쓴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짝이 그랬듯이 누가 “왜 분홍이야?”하고 묻는다면 “남자는 핑크야”라고 대답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이다.

만년필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나석주(羅錫驥) 의사 명언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나는 2천만 민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희생한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에 경제 수탈기관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각각 투척했으나 불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뒤쫓는 일본 경찰 7명을 권총으로 살상하고 총격전을 벌이다 자결하기 전에 물려든 군중에게 한 그의 절규이다. 몸을 던져 민족혼을 일깨운 그는 오늘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1892~1926.

☆ 고사성어/살신성인(殺身成仁)
‘몸을 죽여 어진 일을 이룬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 또는 대의(大義)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온다.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려고 ‘인’을 저버리지 않으며, 스스로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

☆ 시사상식/애자일(agile)
영어 애자일은 ‘민첩한’이라는 뜻.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완벽하게 모든 일을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기거나 제품을 내놓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제품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먼저 개발해 출시한 후에 수정과 보완을 해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양치
‘양지(楊枝, 버드나무 가지)’가 변한 말. 양치는 고려 시대부터 버드나무 가지를 이쑤시개로 사용한 데서 변한 말이다. 일본어 ‘요지’가 楊枝다.

☆ 유머/때늦은 후회
남편이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때 장인이든 말썽을 따를 걸 그랬어. 당신하고 결혼 안 하면 강간죄로 20년 옥살이시키겠다고 하신 거 당신도 기억하지?”
부인이 왜 그게 생각나느냐고 물었다.
“그때 결혼 안 하고 감옥 갔더라면 오늘이 출소일인데.”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유충현 정치경제부/lamuziq@



국회가 밍다고요? 그럼 의석을 늘려야죠

항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여론이 더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뭐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누구 좋으라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짚어볼 부분이 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밍살맞다

면, 의원 정수 확대를 지지하는 편이 논리적으로 맞는 선택이라는 점이다. 정치인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주어진 권력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의원 1인이 지닌 권력은 분산될 수 있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正道言論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온라인뉴스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經濟報國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未來指向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2010년 10월 4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위성라갈렐

서울대 정치학과 객원교수



CVID 비핵화, 새해에는 진전될까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제시해온 목표로 CVID라는 개념이 있다.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인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뜻이다.

이 개념은 미국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래 사용해온 것이다. 그런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후속협상차 평양에 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의 협의 과정에서 CVID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북한이 폼페이오의 CVID 요구를 강도적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클린턴에 대한 반감이 만든 용어

원래 CVID는 클린턴 행정부의 뒤를 이어 집권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인 네오콘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핵심들 사이에서는 클린턴에 대한 반감이 엄청났다. 당시 언론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클린턴에 대한 거부감을 ‘ABC (Anything But Clinton의 약자로서 클린턴이 한 것은 무엇이든지 폄하하는 분위기를 지칭)’라고 부를 정도였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 협상에 대해서도 극히 부정적이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 협상 결과는 이른바 Agreed Framework (AF)로 약칭되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망라되어 있었다. 네오콘은 AF가 잘못된 합의라고 보았다. 부시 행정부 초기에는 파기하려고 나설 정도였다. 당시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한 온건파와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적극 만류하여 파기는 막았으나, AF에 대한 네오콘의 부정적 인식은 막을 수 없었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AF의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생각이 CVID로 표현되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안적 목표인 셈이었고, 그 기저에는 클린턴식 AF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CVID의 각 용어를 분석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런 점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완전한 (Complete)’을 보자. 이 개념에는 AF가 영변의 일부 핵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반하여 부시 행정부는 모든 핵 물질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완전한 해결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검증 가능한 (Verifiable)’을 보자. 이것은 AF가 검증 체계를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불가역적 (Irreversible)’은 AF가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할 소지를 남겨 두는 잘못을 범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컨대 AF에 따르면 영변 흑연로의 사용 후 연료봉은 영변 시설 내 수조에 보관하도록 합의되어 있었다.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북한 내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미북 간에 논란이 심화하자 북한은 이것을 수조에서 꺼내 재처리해 버렸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처럼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합의를 해준 것은 잘못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폐기 (Dismantlement)’인데, 이것은 AF가 영변 시설을 장기간 동결 (Freeze) 상태에 두는 합의인 데 반하여, 부시 행정부는 폐기를 추구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말하면, 클린턴의 북핵 합의가 불완전하며 검증 불가하고 가역적인 동결인 데 반해, 부시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CVID에는 당시 미국 네오콘의 북핵 관련 관점이 정교하게 응축되어 있다.

이러한 연원을 가진 CVID를 북한이 좋아할 리가 없다. 북한은 처음부터 거부하였다. 당시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CVID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 개념의 목표가 너무 높아서 북핵 문제해결 과정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첨예화하면서 CVID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 태세가 크게 달라졌다. 급기야

아니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불거졌으며 이는 결국 비핵화 협상의 정체 (滯帶)로 이어졌다. 즉, 미북은 비핵화의 개념을 두고 다투는 셈이다.

회담 다시 열려야 동력 얻을 것

이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모호하다. 한국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한반도에 비핵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므로, 협상이 비핵화의 개념에서부터 공전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은 CVID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그리 다르지 않고 유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막상 북한이 CVID를 공개적으로 매도하고 나오자 그런 해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회담은 올해의 빅뉴스였지만, 비핵화 협상은 큰 진전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사진은 6월 회담 당시 한 싱가포르 시민이 도시철도 역에서 현지 신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를 보고 있는 모습. 싱가포르=뉴시스

CVID 표현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되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범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비핵화 문제가 최고위급의 협상 소재가 되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전력 운용을 비롯한 위협이 없어져야 하며, 그래야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룩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용어이다.

북미의 다름은 비핵화 개념차이

이 용어가 미북 정상회담 문건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그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측 상대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비핵화를 약속하였으니 CVID의 길에 나서라고 주문하였다.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논의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 CVID가 아니라고 하며 반발하였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주문을 ‘강도적’이라고 부른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한편 미국은 근래 CVID를 조금 다르게 풀어서 FFVD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한다. FFVD는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의 약자이다.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라는 뜻이다. Complete와 Irreversible을 Final로 대체한 것이니 그 의미는 CVID와 유사하다.

이처럼 미북 간에는 CVID/FFVD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은 새해로 들어간다. 새해에 금년 초부터 전개되었던 정상외교가 재연될지, 그렇다면 그 성과물은 금년과 무엇이 다를지가 관심사로 된다.

만일 새해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에서 정상들이 앞서 말한 비핵화의 개념을 비롯한 주요 쟁점에 대해 톱다운으로 큰 틀의 교통정리를 해 준다면, 후속협상은 동력을 얻을 것이다. 지금 미북은 비핵화 개념 외에도 비핵화부터 할지 신뢰 구축부터 할지 우선순위를 두고도 논쟁하고 있다. 아울러 비핵화를 한다면 핵·미사일 등 중요 부분부터 폐기하는 프론트 로딩식 접근을 할지, 아니면 쉬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톱다운식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싱가포르회담은 북한에 북한식 비핵화 개념이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을 심어준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식 비핵화에 더 집착하게 되었다. 초유의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빅벙에도 불구하고, 후속협상이 정체되는 역설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러한 금년의 경과를 돌아본다면 새해의 비핵화 협상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래가 과거의 반복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새해의 상황 진전을 소망한다.

주러시아대사,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임

사설

‘산업혁신’ 말만 말고 실행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산업혁신을 강조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뒀었지만 이제 한계에 이른 것 같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기 위한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력 제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주문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6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비롯,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이다. 김 부의장은 특히 정부의 지나친 적폐청산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기업에 부담이 되면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이 산업혁신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새삼스런 내용도 아니고, 재계가 그동안 수없이 절박하게 해결을 호소해온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다. 김 부의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보면 그의 마지막 고언(苦言)이기도 하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심각한 위기 상태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마저 하락세의 조짐이 뚜렷하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산업전략 부재에 대한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이제라도 나오나 다행이다. 하지만 산업혁신의 방도는 명료한데 그 길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문제다. 혁신의 지름길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 인력에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그 전제는 파격적 규제개혁으로 기업할 자유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高揚)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고질적 경직성을 타파해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것도 급선무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늘상 말뿐이고, 정부의 친(親)노동 일변도 정책에 변화도 없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다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산정기로 함으로써 기업들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고 혼란만 키운 게 대표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제도 “냄비 속 개구리가 화상을 입기 시작했다”며 규제혁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벌써 수십 차례 거듭해온 호소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500여 건의 기업 관련 법안 가운데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숨통만 죄어서는 산업혁신도, 경제성장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한 컷



안녕~

12월의 끝자락, 붉게 물든 하늘 사이로 여객기가 솟구쳐 오르고 있다. 목적지가 정해진 비행기처럼 저마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항로 위에서 무던히도 달려왔을 2018년. 첫 시작, 그 마음처럼 마지막까지 비행 자세를 바로 하고 후회 없는 연말을 맞이하길.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나 × LG Objet

프리미엄 프라이빗 가전 LG 오브제



TV | 오디오 | 냉장고 | 가습공기청정기
하드스페이스 | MERIDIAN technology | 저소음설계 | 굿나잇케어